



Tidal Flats, Not Airports!

세살과
WEEKLY 19 no.03



3주차 행진 경로

8.30 토 양뽕사초의 날
성환역-평택시청(10.3km)

성환역-천안대로주유소-SK LPG충전소-비전지하차도사거리-평택시청

8.29 금 가마우지의 날
천안역-성환역(13.8km)

천안역-두정공원-전자랜드 메가마트-천안북부스포츠센터 (점심)-성환역

8.28 목 즐장지뱀의 날
전의역-천안 흥타령관(15km)

전의역-GS25세종첨단산업점-동호원호두과자남천안점-천안대로110(점심)-흥타령관

8.27 수 칠게의 날
조치원역-전의역(15.7km)

조치원역-알뜰신안주유소-전동면행정복지센터-개미고개휴게소 (점심)-전의역

8.26 화 검은머리갈매기의 날
국토교통부-조치원역(13.6km)

국토교통부 - 기쁨뜰공원 - GS칼텍스 연기주유소 - 연봉초등학교 -
조치원체육공원 (점심)- 조치원역

8.25 월 대모잠자리의 날
금암삼거리-세종보농성장-국토교통부(10.7km)

금암삼거리-세종가람동960-
금강스포츠클럽 세종보 농성장 (점심) -
국토교통부

+세종보천막농성간담회+
+국토교통부 규탄 집회+ 16:00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

8.31 일 황조롱이의 날
평택역-진위역(15.4km)

평택역2번출구-SK우리주유소-송탄산업단지기념탑-평택시의회(점심)
-진위역1번출구

+세계연대의 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를 위한 문화제+

15:00 진위역 앞



8 들어가는 글 _ 박영길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3. - 미래

12 '일곱째별'의 새, 사람 행진 3.
못생명이 우글우글

250825 대모잠자리의 날

52 수라의 외침 _ 딸기
54 새만금백지화행동 공동대표 지은 _ 국토교통부규탄집회발언
56 새,사람행진기3 _ 알알이 같이 좀 살자
66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못생명이 우글우글"
새,사람행진단의 외침

250826 검은머리갈매기의 날

74 수라의 외침 _ 딸기
76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비가 와도 춤추며 노래하며 행진은 계속된다
78 서산시대 칼럼 _ 김대건 '새,사람 행진'에 관심을 갖자!

250827 칠계의 날

86 수라의 외침 _ 딸기
92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구미에 도착한 행진단

250828 줄장지뱀의 날

102 수라의 외침 _ 딸기
104 함께해요<새,사람> _ 전국 (신)공항지도 / 모든 신공항 백지화
106 오마이뉴스기사 _ 흑미 1만7천km 이동 중 딱 한 번 쉬는 곳...
큰뿔부리도요 휴식처가 위협하다

250829 가마우지의 날

116 수라의 외침 _ 딸기
118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이 땅의 주인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갖 새들과 나무들 모두

250830 양뿔사초의 날

126 수라의 외침 _ 딸기

250831 가마우지의 날

134 수라의 외침 _ 딸기
136 세계연대의 날 _ 나희 te ara whānui a Tāne
138 국제연대메시지1 _ 스테이 그라운드
대한민국 새만금신공항 반대 행동과 함께 하는 국제 연대
144 국제연대메시지2 _ 라다 드수자 및 기후범죄 재판소 시민법정 담당자
사법부 존경하는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님, 문지용 판사님,
고철만 판사님께
148 새만금신공항철회 국제연대 선언 _ 국제연대의 입장에서 국제법으로도
새만금신공항은 철회되어야 한다
152 세계연대의 날 _ 알알이 같이 가보려 합니다.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156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황조롱이와 맹금류의 외침,
"수라갯벌은 살아있다"
158 한겨레기사 _ 김규원 선임기자 "새만금신공항, 한국민 이익에 부합 안해...
취소 판결 내려달라"

160 REFLECTION_ Tony Not-Yet Humanity



참가신청



참가자안내



텔레그램채널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3 - 미래

행진단은 매일 행진을 끝내고 나서 다들 둘러앉아 그 날의 일과들을 정리하고 의견들을 두루두루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천역 광장 앞에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오두희 쌤께서 이번 행진단이 이루고자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다. 이재명정권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는 점과 우리의 투쟁은 고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수많은 현장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짚으면서 남태령을 이야기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남태령을 넘을 것인가?

우리는 흔히 모든 사건들은 처음 발생할 때부터 이미 과거로 향한다고 말해진다. 다만 과거로 향하는 사건들을 현재로 불러 세우는 것이 우리 활동가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변화의 의지만이 미래로 향하고 미래를 불러들인다고 말한다.

남태령의 농민투쟁은 광장만큼이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소멸되고 있는 농촌과 버려진 농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트랙터를 끌고 행진하던 농민들이 남태령에서 고립되고 고착되었을 때, 온갖 탄압을 뚫고 기필코 남태령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준 수많은 투쟁현장의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이 있었다. 그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남태령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대리된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힘으로 넘어야 하는 중요한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결국 광장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탄압에 맞서 권력의 저지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남태령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가끔 우리는 수많은 역사라 불리우는 과거의 시간들을 호출한다. 하나하나의 역사가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비록 과거를 다루지만 우리들이 그 과거에 저당잡혀서, 오직 과거를 불러내는 것에 그치는 순간 역사는 박제화되고 우리들은 도태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며 많은 생명들은 오직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역사적 사건들의 전면적인 등장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 사람행진단 오두희 공동단장은 말한다.

“법은 큰뿔부리도요 새를 살릴 수 있을까?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이재명 정부라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결국 전국에 존재하는 도요새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난다.”

그렇게 오두희 단장을 비롯한 행진단은 법에 구속된 현실을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남태령을 넘으려 하고 있다. 남태령을 후일담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다시 불러내어 이렇게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롭게 불러올 미래의 다른 세상들을 만나러 소리치고 춤을 추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에게 깊이 박히는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불러올 미래는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수록 상상의 공동체가 되었던, 유토피아가 되었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한 상상이 가지는 몽롱함에 취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 어렵듯이 이것이 다일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견디어 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

나는 오두희 단장을 뵈 때마다 지금에 답하지 못하는 미래란 거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죽어가는 것들에게 미래란 없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건, 혹은 버려지는 건 결국 노동자, 농민, 그리고 못 생명들이자 우리들이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이 미래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아프더라도 현실의 문제에 당당히 답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뭇생명이 우글우글

20250825 월요일 대모잠자리의 날
세종시 금암삼거리~국토교통부 10.7km(누적 110.5km)

거대한 깃발이 앞장섰다. 8월 12일 행진 첫날에도 휘날렸던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대형 깃발이었다. 깃발을 앞세워 전동휠체어 탄 분과 녹색당, 정의당, 민주노총 전북지부 등이 7km를 걸어서, 작년인 2024년 4월 29일에 설치해서 이날 483일째 농성 중인 세종보 농성천막이 있는 강변으로 내려갔다. 새, 사람행진단은 금강을 거슬러 8월 20일에 부여 백제보를 지나 22일에 공주대교를 지나왔다. 우금티를 지나지 않고 강을 따라 왔다면 공주보를 보았을 것이다.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인사에 이어 문정현 신부님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못생명이 우글우글' 서각을 선물해 주셨다. 이어 나귀도훈(임도훈)이 상황설명을 했다.

“여기는 금강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이 세종보 소수력발전소입니다. 지금 수문이 열려있긴 하지만, 강의 절반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서 막혀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죠. 그래서 추진이 좌절됐다가 사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우리나라 사대강에 수심을 6미터로 일괄 준설하고 16개 댐을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총예산 22조 투입, 추가된 금액까지하면 35조의 돈을 쏟아부어 그 결과 흐르는 강을 막아 댐을 지어 놓았더니 강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은 속도를 잃었고 강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속절없이 녹조가 창궐하고 수질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에 살던 생명은 강을 떠나고 물사리는 떼죽음을 당하고 연꽃이 피고 큰빛이끼벌레라는 강에는 살 수 없는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을 외쳤고 투쟁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사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며 세종보를 개방했습니다. 당시 2018년까지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16개 중 낙동강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단 한 개 보도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의 승천보, 죽산보 등 다섯 개 보처리방안마련과정을 거쳤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세종보 개방해서 3년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했습니다. 당연히 막혀있던 수문을 열었더니 강이 흐르기 시작했고, 녹조는 사라졌고, 떠나갔던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수몰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흰목물떼새가 산란하고 부화하고 나는 연습을 합니다. 수달과 삵과 너구리와 오소리가 달립니다. 수문이 닫히면 전부 수몰됩니다. 개방하고 났더니 자갈밭과 모래사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맑은편 섬이 철새들이 와서 쉬는 곳으로 회복됐습니다.

2021년 1월 18월에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세종보는 철거, 공주보는 다리 기능만 남겨놓고 수문 철거, 백제보와 승천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 철거.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보처리방안이 유아무야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 11월에 2024년 5월 세종보 재가동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전인 4월 29일에 이곳에 천막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천막을 치지 않았다면 이곳은 수몰되었을 겁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사대강재자연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론화 재논의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대강재자연화 6년 차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성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대강재자연화)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스란히 개발주의자와 자본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에 가덕도, 새만금, 제주, 설악산, 지리산, 사대강 현장 지킴이 50명 정도가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환경부 앞에서 생명위령제를 했습니다. 한번 힘있게 싸워보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한 줌 같은 사람이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모임 겁니다. 여러분은 걸어서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략)

‘보철거를위한시민행동에서 자금을 대고, 동네방네기후정의(대전 은실과 명이 데모

자매)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한발레츠 순옥)가 몸을 내어서'묵밥과 차가운 커피를 준비해주었다.

맛있는 식사 후 재깅재깅(이재깅)이 인물 사진관을 열었다. 사진 찍는 옆에서 흥겨운 노래마당이 벌어졌다.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로 발길을 옮겼다. 불과 3.7km였지만 한낮 무더위 속에 한 시간 걷기에는 뜨거운 거리였다.

오후 4시 국토교통부 규탄집회가 열렸다. 세종 진입 시 75명이던 행진단원은 약 100명이 되어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고통'부라는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막막한 심정과 간절함이 담긴 규탄발언은 따로 전문이 게재되니 생략한다. 제주강정마을지킴이들의 공연과 세종보철거를 위한 시민대책위 강형석님의 연대발언과 가지가지(김형우)의 공연 이후 행진 팀장 딸기가 발언했다.

“많은 환대를 받으며 왔습니다. 남이 먹을 물과 도시락까지 싸 온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흘러야 갯벌이 산다는 사실, 강과 갯벌, 육지와 바다를 잇는 갯벌을 살리는 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걸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수라갯벌을 지키는 일은 이 강을 지키는 일이고, 이 개발주의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걸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총돌과 미군기지확장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누구보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 위험천만한 공항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이 위험천만한 공항이 나중에 벌어질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무엇이 모자라서 두 번째 보안을 요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중략)

저희는 이번 재판이 단순히 신공항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개발과 성장주의에 종지부를 찍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재난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개발과 성장, 과거의 관습을 답습하는 정부 부처에 재판부는 종지부를 찍고 그러한 정책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부가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취소소송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 결정을 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5일이면 저희가 남태령을 넘어 서울로 들어갑니다. 탄핵의 열기가 모였던 그 남태령을 저희는 큰뫼부리도오와 함께, 또 수라에 살고 있는 뭇 생명과 함께,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넘어 이 성장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과 안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행진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2시 반까지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9월 6일, 용산을 넘어 광화문까지 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잔혹한 개발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하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중단하라!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새, 사람 함께 살자!”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수라폴터령을 하며 규탄집회는 흥겹게 마무리했다.



©일곱째별



©일곱째별

20250826 화요일 검은머리갈매기의 날 국토교통부~조치원역 13.6km(누적거리 124.1km)

새벽 두 시 반, 천지를 밝히는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행진이 걱정되었다.

그래도 오전 8시, 국토부 길 건너에는 사람들이 30여 명 모여 있었다. 우중충한 비도 행진단의 밝음을 막을 순 없었다.

행진 중에 장계성당에서 합류했다. 첫 쉬는 시간, 장계성당 어린이들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하라' 글씨 써 준 형광 조끼를 나눠 입었다. 게다가 전날 제주에서 온 해초가 안전 요원으로 전문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새, 사람행진단원들의 안전은 더욱 든든해졌다.

조치원 체육공원에서 맞는 점심시간에 꿀잠에서 카레라이스를 해왔다. 언제 오시나 기다리던 김용균 엄마도 왔다. 공주에서 오신 왜가리와 친구처럼 중간에서 합류하는 분들도 많았다. 식후 대동지하차도를 지나 조치원역에서 마무리했다.



©일곱째별

20250827 수요일 칠게의 날 조치원역~전의역 15.7km(누적거리 139.8km)

전체구간 중 최장 거리 날, 아침 7시 8분에 기차에서 내렸다. 역 앞에서 행진단을 기다리는데 단출한 차림의 한 분이 다가왔다. 영국과 핀란드에서 수년간 있다가 익산에서 잠시 거주한다는 분이였다. 수라갯벌을 살리고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이들은 의외로 다양했다.

조치원역에서 40명이 출발했다. 그런데 전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닿기 전에 전국 녹색연합에서 40여 명이 합류했다. 가는 곳마다 공사 중인 길을 걸어 내 사랑 배롱나무를 지나 총 80여 명이 그 힘들던 6.25 전적지 개미고개에 올랐다. 우금치 때보다 길고 높은 구간이었지만 거뜰히 넘었다. 신부님은 황조롱이를 새기고 계셨다.

전의역에서 돌아가며 소감을 말하고 행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새, 사람행진단의 문정현 신부님, 완두와 김연태 단장님, 딸기, 오이, 프코, 가지가지, 재깍재깍, 작두, 해당화, 공룡 설해, 알알이, 해초, 나 14명은 구미로 향했다. 한국유타칼하이테크 고공농성 598일째 <우리는 만나야 한다> 문화제, 박정혜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



©일곱째별

©일곱째별



©일곱째별

‘지상과 고공의 거리
기업과 노동자의 거리
세상과 나의 거리
너와 나의…’

그날이라도 우리 함 만나자
지금, 가장 뜨겁고 혹독한 자리
분하고 억울하다 허공 중에
십자가로 매달린 정혜와 동지들 곁에서
밥 한 술
시 하나
노래 한 줄

우리 나누자’는 문자를 보냈던 해남 나무의 사회와 노래와 여수 이광일 한승희 부부의 정
갈하고 풍성한 음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자 광주 기아자동차 노동자 양기창 시인의
시 낭송, 노래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지음 오지은의 노래가 이어졌다.

종일 16km 가까이 걸은 새사람행진단은 어느새 골판지에 글씨를 쓰고 전구를 달아 정
혜 동지 보라고 들고 서 있었다.

‘박정혜가 좋다’
‘새는 하늘로 사람은 땅으로’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

불탄 지 22개월 된 공장 고공에 박정혜는 598일째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을
맞고 있었다.

그날은 칠석이었다. 문정현 신부님이 견우가 되어 ‘직녀에게’를 부르셨다. 여든여덟 살
신부님이 애절하게 목놓아 호소하는 “우리는 만나야 한다.”

지난 7월 2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녀갔고, 고공농성 599일째인 다음 날은 정
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문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본사인 니토
덴코는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일곱 명에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0250828 목요일 즐장지뱀의 날 전의역~천안 흥타령관 14.9km(누적거리 154.7km)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단국대의료원지부 등에서 오셨다. 새,사람행진 SNS 를 보고 과일음료수를 사 오신 지역 주민은 감사하다며 울먹이셨다.

스트레칭과 즐장지뱀의 외침 낭독 후 기준 할아버지 문정현 신부님의 외침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행진 대오는 항상 잘 걷는 사람이 뒤로, 힘에 부치는 사람이 앞에 선다. 고로 금속노조 충남지부가 맨 뒤 열에 섰다.

전의면 1차선 시골길을 지나갈 때는 면민들의 반응이 따뜻했다. 청명과 작두와 해당화, 세 흥자매가 그 기세를 끌어올려 노래하며 행진했다. 즐장지뱀의 날인 이날 진짜 뱀을 보았다. 걷다 보면 저 멀리 파란 옷의 영길 샘이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 게 보인다. 휴식처에 당도한 것이다. 그 옆엔 예의 신부님이 계신다. 이날은 가마우지를 나무에 새기고 계셨다.

대도시 천안에 들어서면서 거리 폭도 넓어지고 차량도 늘었다. 그래도 천안에선 호두과자를 먹어줘야지. 휴식 시간에 답사 때 들렀던 호두과자 가게에선 얼음물을 몇 사발 내어



©일곱째별

주셨다.

다시 행진하려는데 큰뒷부리도요를 모신 세발자전거 앞바퀴 바람이 빠져있었다. 마침 근처에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어서 급한대로 바람을 넣어 출발했다. 그 뒤로 내 눈은 큰 뒷부리도요 앞바퀴에만 가 있었다.

다시 행진하는데 경쾌한 경적이 옆에서 들렸다. 대전에서 온 데모 자매와 한발레츠 순옥이 점심밥을 싸 오는 소리였다.

신부님과 영길 샘이 겨우 찾아낸 그늘인 다리 밑에서 뺨튀기 접시 위 오색 주먹밥과 오이냉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님은 다리 밑 그 자리를 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땀별 아래 그늘이란 무더위를 불평하던 요나의 덩굴만큼 귀한 자리였다. 행진단에게 필수인 그늘을 잘 찾아주신 신부님은 밥을 다 먹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짚고 포도를 송이송이 전달해주셨다. 그날 길 위의 신부님의 거친 맨발을 다시 보았다.

그러던 중 한국유타칼하이테크 박정혜 동지가 고공농성 600일째인 다음 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날 보고 왔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문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만에 내려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노사합의 소식은 어디에도 없고, 노사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방지법'입법을 약속한 조건으로 고공농성을 끝낸 것이다. 정혜 동지가 내려온 건 천만다행한 일이었지만 참담한 마음이 차올랐다. 우리 노동자를 일개 부품으로 아는 일본 기업에 대한 분노와 제 나라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렇게 3km를 더 걸어 능수버들 흐드러진 천안 흥타령관 앞에서 행진을 마쳤다.



©일곱째별

자전거에서 내린 큰뿔부리도요는 잠시 다리를 잃어 황망해 했다. 하지만 행진 후 찾아간 자전거 수리점에서 새사람행진단이 좋은 일 한다며 자전거를 무상으로 고쳐주시고 캔 커피도 주셨다. 고로 큰뿔부리도요는 천안 인심으로 다시 뽕뽕한 바퀴다리를 얻었다.



20250829 금요일 가마우지의 날 천안역~성환역 13.8km(누적거리 168.5km)

이날은 가마우지의 날. 철새에서 텃새가 되어 군산 옥녀봉 위를 하얗게 만들고 자주 날개를 펴서 물기를 말리는 가마우지처럼 까맣게 옷을 입었다. 그런데 진짜 가마우지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들이 날갯짓까지 했다.

천안역에서 출발하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 선생님이 맨 앞에서 행진했다. 둘은 각자 독립적으로 행진했는데, 전동휠체어를 작동하는 장애인과 그의 땀을 닦아주는 활동보조 선생님의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옆을 스치는 가로수의 초록을 손으로 훑기도 하고 머리에 쓴 저어새의 부리를 쓰다듬기도 하는 선생님의 뒷모습에 동심이 묻어났고 그 발랄함이 나란히 가는 이에게 전달 되는 듯했다.

3.3km 행진하고 두정공원에서 휴식 후 또 3.4km를 가니 전자랜드 앞에 신부님과 영길샘이 계셨다. 영길샘이 행진 내내 준비한 색색들이 과일과 시원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쉬었다. 그곳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 선생님은 돌아갔다. 신부님이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지 활동보조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떤 순간 누군가의 한 마디는 그날 혹은 일생의 기억이 되기도 한다.

천안북부스포츠클럽에서 천안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점심밥을 먹었다. 연두색 식판에 밥과 김치국과 돼지갈비와 달걀말이와 메밀전병과 유부숙주나물. 일회용 그릇이 아닌 식판에 먹으니 좋았고, 음식은 먹고 또 먹을 만큼 맛있었다. 그렇게 배와 포도가 유명하다는 천안시 성환역에서 행진을 마무리했다. 가도 가도 충남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곱째별



©일곱째별



©일곱째별



20250830 토요일 양appel사초의 날 성환역~평택시청 10.3km(누적거리 178.8km)

성환역에서 모였다. 한국유타칼하이테크 박정혜 동지에 이어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도
속히 땅으로 내려올 날은 손꼽고 있던 차에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이 금강휴게소
에 이어 또 참가했다.

새사람행진단은 보름째 충청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경기도본
부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왔다. 그건 이날 마침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진입하
는 것을 의미했다. 말벌 동지들과 조류보호협회원 등 54명이 출발.

처음에 함께 걸으시던 신부님은 몇백 미터 앞에서 길가 고무통에 앉아 걸어가는 행진단
을 바라보셨다. 부여에선가 출발하면서 걸으시던 신부님이 “이젠 힘들어.”하시던 음성이
떠올랐다. 잠시 머뭇거리던 내가 “인생은 칠십부터니까 이제 열여덟 살이세요.”라고 했
다가 욕을 먹은 기억도 따라 났다.

‘그래도 신부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꼭이요.’

천안대로 주유소 길가에서 쉬고 충전소 옆 커다란 나무 아래 평택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묵밥과 갓 따와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오셨다. 맛도 좋았지만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더
좋았다. 푸짐한 점심식사 후 어디에선가 아이스크림도 공급되었다.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신부님은 ‘전쟁 말고 평화, 고라니’를 새기고 계셨다.

사진 : CKC06733" 묵밥

식사 후 사랑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행진단은 흥을 더욱 돋웠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
래 탬버린이 춤을 추자 드디어 충청남도를 넘어 경기도로 진입했다. 19일 만이었다. 경
기도의 논은 벌써 여문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도착지인 평택시청에 도착했을 때는 70
명이 넘어있었다. 그곳에는 김연태 단장님 아드님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
었다.

사진 : CKC06892" 탬버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군산에서 전주 농성천막까지 버스로 세 시간 걸려 오셔서 그리
도 많은 밤을 지새웠던 단장님, 그러면서도 점잖고 과묵하게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시던
단장님을 뵈 때 아드님의 출현은 놀라웠다. 가족의 지지를 받는 가장의 모습은 얼마나 영
예로운가. 그렇게 새,사람행진단은 많은 이들의 사랑과 정성에 힘입어 전라북도에서 출
발해 경기도에 진입했다.



©일곱째별



©일곱째별



©일곱째별



**20250831 일요일 황조롱이의 날 평택역~진위역
15.4km(누적거리 194.2km)**

백여 명이 평택역 앞에 모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쌍용자동차 노조와 제주 등 여러 단체에서 참가해서 든든했지만, 보령에서 다섯 번째 참가하는 가족이 유독 반가웠다. 이날 가격은 리건(김나희)의 삭발한 머리에 탈색과 빨강, 초록 염색으로 팔레스타인 국기를 표현한 전위예술이었다. 화려하고 흥 넘치는 새, 사람행진단이 8시 반에 행진을 시작했다.

10.3km를 걸어 평택시의회에서 점심을 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평택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주먹밥과 미역 냉국을 준비해주었다. 그날 함께 둘러앉았다가 일어난 재깍재깍의 자리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그의 땀에 젖은 엉덩이가 남긴 자국이였다. 그가 그렇게 일찌감치 일어나 석장리, 세종보에 이어 인물 사진관을 다시 여는 사이, 온갖 극한 농성장에 함께하는 오춘상 원장은 점심시간에 문정현 신부님 마사지를 해드렸다. 지압점을 정확히 아는 손길이기에 길게, 오래 해야 만족하시는 문 신부님의 구릿빛 얼굴이 편안해 보이셨다.

식후 팽수의 풍물로 시작한 행진은 수십 분 후 갈증으로 허덕였다. 행진단에서 십 분만 쉬자는 말이 나온 건 최초였다. 가지고 있는 물을 나눠 마시고 휴식 장소인 주유소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침 후방 차량의 물이 동났다. 백 명 넘게 목이 타들어 가던 그때 오이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옥 전 사무국장이 길을 뛰어 건넜다. 잠시 후 생수가 생명수처럼 공급되었다. 행진단은 곧 푸룽푸룽 살아났다.

저만치 진위역 앞 육교에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미리 가신 신부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다. 행진단보다 먼저 뛰어가 육교로 올라가 신부님 옆에 섰을 때 문득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국의 성베드로성당 광장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교황님이 손을 흔들면 이런 느낌일까. 저 아래 못생명을 살리겠다고 개미처럼 걸어오는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럴 때 어땀하실까.





마침내 세계시민연대의 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 문화제. 팔레스타인 국기 머리 리건의 사회로 선언문 낭독과 팽수의 공연이 있었다.

스물세 나라에서 보낸 세계 연대 동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외치는 “Save Our Sura” “수라갯벌 살리고 공항은 반대한다”는 외침은 지구인으로서의 동족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연대감을 고양했다. 그들의 표정과 언어는 사랑 자체였다. 그리하여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도 사랑이 되었다. 그동안 걸어오면서 일체 되었던 큰뫼부리도요, 저어새, 가창오리, 검은머리물떼새, 백합, 황새, 통통마디, 흰발농게, 샬, 대모잠자리, 검은머리갈매기, 칠게, 줄장지뱀, 가마우지, 양뿔사초, 황조롱이 사랑.

해남의 나무가 노래했다. 비틀스 Beatles의 <이매진 Imagine> 번안곡 첫 소절 “천국은 따로 없어요.”가 나오자 마음이 폭 가라앉았다. 눈을 드니 전진해오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광장의 깃발이 느리게 휘날렸다. 그이가 한국유토피카하이테크 공장에서 만든 <애타는 깃발> 노래도 처연했다.

알알이가 발언했다. 며칠 동안 그이가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고 다듬으며 고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알알이는 자전거 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합숙 단체생활에서도 구석과 어둠을 찾아다니며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거이어 명문장을 완성해 내었다. 그리고 행진 시작하던 8월 12일 전주 전북환경청 앞에서처럼 우리를 두 번째 감동하게 했다.

임정득이 <땡큐>를 불렀다. 알 수 있었다. 그이가 진심으로 전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경기도 평택시 진위역까지 200km 가까이 걸어온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음을. 나도 우리 행진에 출동할 날을 보고 있었다는 그이에게 고마웠다. 그의 맑은 목소리와 땀에 젖는 열정이 고마웠다. 그이가 준비한 <가능의 미래> 대신 <벨라차오>가 반주로 나왔다. 그 노래는 종일 15.4km를 걷고 한 시간 넘은 문화제로 기운을 다 쓴 행진단원들을 다시 흥 돋게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밤낮없이 준비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세계연대의 날 흥겨운 문화제를 마쳤다.

그리고 2025년 8월도 다 갔다.

이제 남태령을 넘을 9월 5일과 9월 6일 오후 3시 광화문 생명 지킴이 대회와 서울행정법원으로 향할 9월 8일과 마침내 새만금신공항취소소송판결일인 9월 11일이 남았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 사람 행진 @ 남태령

주최 | 새, 사람 행진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남태령 행진

2025.9.5 (금)

10:00 인덕원역 1번출구

13:30 새 세상을 여는 <새, 사람행진> 기자회견

14:00 남태령 행진

문의 : 오이 010-2612-2322
덕이 010-6795-1202

스캔가선정 QR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 사람 행진'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군산미군기지 확장이 될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협의 통보가 가까워졌습니다. 9월 11일에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새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공항, 군산미군기지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인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북지방환경청은 마땅히 부동의해야하고,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해야합니다.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수라갯벌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큰뒷부리도요새와 행진을 시작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 8월 12일(화)부터 9월11일(목)까지

| 행진 경로 : 전북지방환경청-수라갯벌-서천갯벌-부여-공주-국토교통부
-천안-평택-화성-수원-안양-용산-서울행정법원

[주요 일정에 함께해주세요]

- 8/12(화) 오전 9시30분 전북지방환경청 새,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 8/13(수) 오전 9시 수라갯벌 행진단 선언
- 8/25(월) 오후4시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강행 규탄 집회
- 8/31(일) 오후3시 진위역 앞 세계 연대의 날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행진과 집회
- 9/5(금) 오후 1시 30분 새 세상을 여는 <새,사람행진> 기자회견 및 오후 2시 남태령개개 행진
- 9/6(토) 오후 3시 경복궁역 4번출구 국립고궁박물관 네거리 생명지킴이대회
- 9/8(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과 행진 마무리
- 9/8(월)-10(수) 서울행정법원 앞 문정현 신부의 서각기도
- 9/11(목) 오후 1시 55분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선고 재판

| 후원계좌 : 농협 351-0390-7008-93 문정현

| 문의 010-2612-2322(오이), 010-6795-1202(덕이)

| 주최 : 새,사람행진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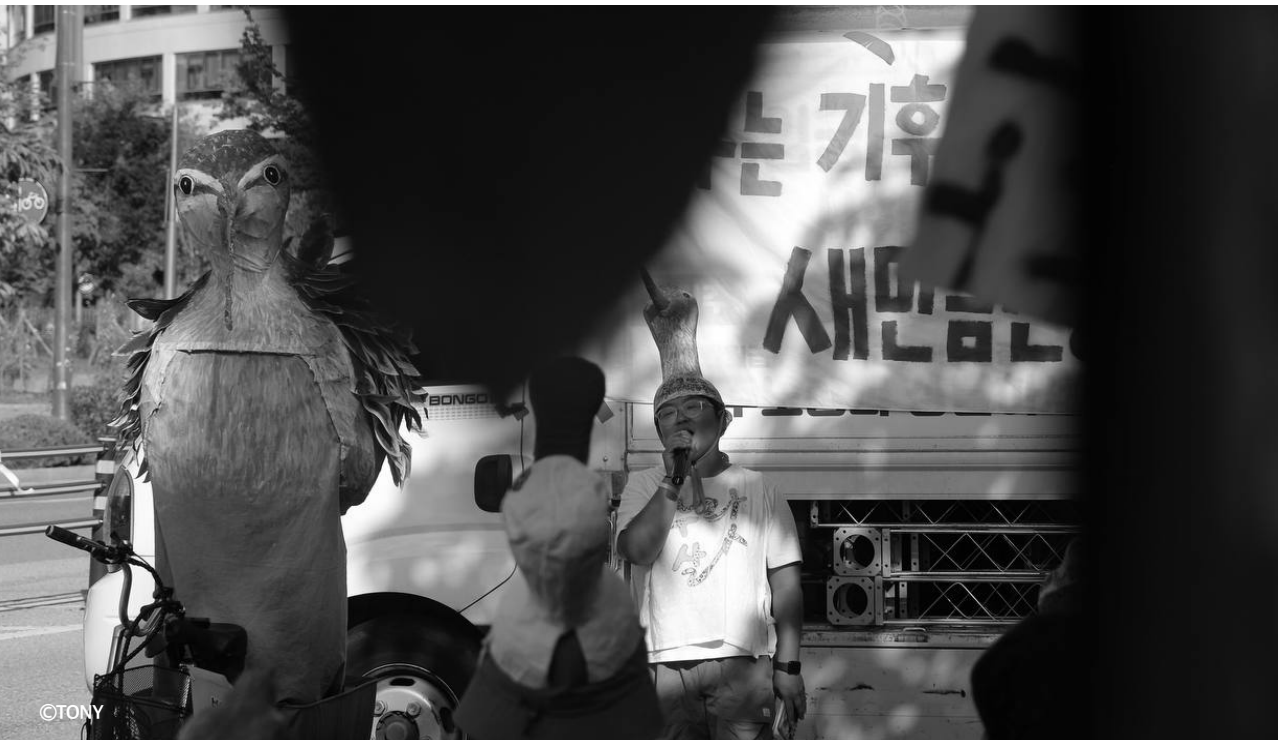




©이재각

250825

대모잠자리의 날



대모잠자리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모잠자리의 날 입니다.

긴 여름의 가장자리를 걸으며 어디에서나 잠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곤충중 하나인 잠자리는 알고보면 육식성 곤충입니다.
어려서는 유충을 커서는 작은 곤충을 사냥합니다. 그중 대모잠자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의 저지대 연못이나 습지가
대모잠자리의 보금자리 입니다. 수라갯벌도 그 보금자리중 한 곳 입니다.
데모가 활발한 이곳에서 만난 대모잠자리라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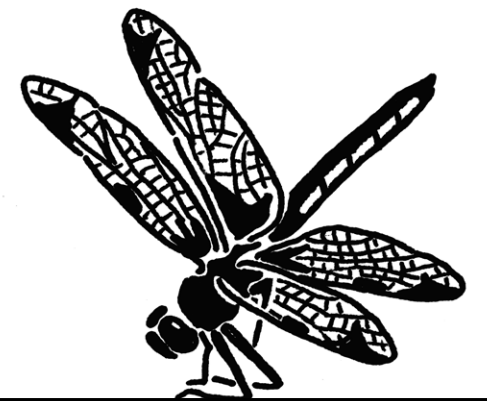
대모잠자리라는 이름은 날개에 세개의 흑갈색 반점이 있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이 무늬가 대모바다거북(때부리바다거북)의 등딱지 무늬와 비슷해 대모라는
이름이 붙었다 합니다. 산란된 알이 1주일후 부화 해 12번의 탈피를 거쳐
번데기가 되기 직전의 상태로 겨울을 보냅니다. 그후 봄에 성충이 되어
나타나는데 한달정도 살며 짝짓기와 산란을 한 후 여름이 오기 전 생을
마감합니다. 대모잠자리의 날개짓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정도라니
아쉽기도 합니다. 인간인 우리들의 눈에는 언제나 짧은 찰나의 아름다움만이
남겠지만 자연의 시간속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깃들어 있겠지요.

올해 5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서는 ‘수라갯벌 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모잠자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나서게 된
이유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모잠자리 서식이 누락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10개체만이 확인됐다고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행동에서 2024년 수라의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만난
대모잠자리는 500개체 이상이었다고 하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수라갯벌의
다양한 생물상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는 항상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경우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대모잠자리를 비롯한 수라갯벌에 살아가는 수 많은 동식물들은
정부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전히 보호되지 못합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등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환경과 생명보호의
의무보다 개발의 이익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법원이 자본의 이윤보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 봄에도 수라갯벌에서 대모잠자리를 찾아 나설것입니다.



지옥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학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죽여도 된다”라며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죽여도 된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부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생명들, 사람이 아니니까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정부는, 자본가 정부는 사람이 아닌 생명들은, 자기보다 낮고 힘없는 생명들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죽여도 된다고 말하고 실제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체제에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9월 6일, 생명지킴이 대회가 광화문으로 갑니다. 새만금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세종보 농성장, 설악산 케이블카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학살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함께 광화문으로 달려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싸우고, 더 많이 모여서, 더 가열차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옥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이 생명을 죽이는 게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더 크게 싸우고, 더 많이 모읍시다. 이 지옥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같이 좀 살자





수라갯벌을 보전하자는, 경제성 없는 군사적 목적의 신공항은 짓지 말자고 주장하는 <새,사람행진>이 8월 12일 시작된지 벌써 20일차를 넘었다. 첫날 전주의 전북지방환경청, 둘째날 수라갯벌을 지나온 행진단은 서천에서부터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여 금강길을 따라 부여, 공주, 세종과 천안을 지나 평택에 이르렀다. 나는 행진단에서 큰뿔부리도요를 모시고 자전거를 타는 집사 역을 주로 맡고 있으며, 이제 행진이 열흘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는 1인이다.

8월 31일, 새,사람행진에서는 황조롱이의 날, 평택에서의 행진에는 약 130여명이 모였다. 지금까지의 행진 중 가장 많은 수였다. 연대하는 시민들이 지역의 민주노총, 성당과 조류보호협회 등 단체에서도, 제주를 비롯한 전국 방방곳곳에서도 오셨다. 멜로디언을 들고 나와 행진 노래에 맞춰 연주해주신 한 분은 뉴탐사 현장라이브에서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행진에 오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저는 그냥 원래는 가끔씩 이제 설문조사나 이제 청원이나 이런거를 가끔 돕는 그런 사람, 그런 정도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어쩌다가 계엄 이후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농민들이 갑자기 지금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농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우러 갔다가, 노동자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노동자를 도우러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까지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는 이렇듯 물이 흐르듯이 흘러간다. 새,사람행진도 냇물이 흘러흘러 강으로 가고, 갯벌을 지나 바다로 가듯이 넓어져왔다. 새,사람행진 3주차만의 여정만도 보자. 8월 25일에는 금강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세종보 개방을 주장하며 2024년 4월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이다.

이날 임도훈 활동가(대전충남녹색연합)의 안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에서 시작해 결과적으로는 35조가 되었고, 16개 보로 강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은 원래 속도를 잃고 거의 호수가 되었다. 주기적으로 녹조가 발생했고, 이에 산소가 부족해지자 물에 사는 생명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재자연화를 목표로 세종보를 포함 금강, 영산강의 5개보를 시험 개방하고 3년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으며(환경부), 수생태계가 건강해졌다고(세종시와 충청도 민관합동)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세종보 재가동을 발표했고, 이에 재가동 중단을 외치며 세종보 앞에 천막을 펼치고 밤낮없는 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좀 살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때 4대강 사업을 막으려고 뭐라도 해보려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한 백수였다. 아무래도 못 막을 것 같았지만, 나름 환경을 인생을 주제로 살아보자 했던 사람으로서 가만 있으면 나중에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나름 발버둥을 쳐봤는데, 역시 못 막았다. 정부는 콘크리트 벽처럼 견고했고, 대부분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난 후, 언제부터인가 나는 4대강 관련한 이슈를 외면했다. 그러나 보가 세워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강에서의 삶과 운동은 이어지고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지어졌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듯이. 수라갯벌에서처럼 얼마간은 버티고 새롭게 탄생하며 삶이 이어지듯이.

천막농성 12일차 때의 천막 소식에서 '나귀'님은, '세종보 재가동'이란 "포크레인으로 물떼새 둥지를 밟는 일"이라고, "너구리, 수달, 삿, 고라니, 온갖 새들을 물에 수장시켜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세종시 안에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세종보 상류 이곳이 수몰되면, 여기 사는 야생동물들은 모조리 집을 잃게 됩니다. 온통 개발로 모든 농지며 산지를 다 빼앗아 놓고도, 아파트 단지에서 고라니가 발견됐다고 썰죽이고,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했다며 썰죽이고, 수목원에 나뭇잎 좀 먹었다고 썰죽이고! 대체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좀 살자고 여기 천막을 지은겁니다."(나귀님, 세종보 천막 소식 12일차)

8월 27일, 칠게의 날에는 조치원역에서 전의역까지의 행진을 마친 후 문정현 신부님을 포함한 행진단 열넷이 구미로 날아갔다. 한국유틸리티테크의 옥상에서 598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박정혜님을 만나러, 새를 지키자며 새와 함께 걷는 새,사람들이 공중에 떠 새가 된 새,사람을 만나러 갔다.



일본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옵티컬하이테크의 구미공장은 LCD편광필름을 생산해 삼성이나 LG 등에 납품해왔다. 2022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자 회사는 생산을 평택 공장으로 옮기고 구미 공장을 청산하기로 결정했고, 구미공장의 210명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를 거부한 17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7명이 평택 공장에서도 일하게 해달라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혜님이 그 중 한 명으로, 작년 1월 옥상에 올라 600일 가깝게 살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역대 최장기 고공농성이 되어버렸다.

8월 12일 시작된 행진을 하면서 가끔씩 박정혜님을 생각했었다. 이렇게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도 덥고 힘든데, 태양을 피할 수 없는 옥상의 제한된 공간에 밤낮을 사는 그 이는 어떨까. 문화제의 후반부에 박정혜님은, "행진을 하다 옵티칼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수라갯벌에서도 새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곁으로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더위에, 추위에, 폭우에, 고독에, 두려움에, 몸도 마음도 너털너털하게 지쳤을 그 이가, 수라갯벌에 사는 새들을 이야기하는 데서 나는 참지 못하고 울었다.

그리고 다음다음날, 박정혜님은 내려왔다. 8월 29일, 공장 옥상에 올라간지 600일 만에. 정부와 민주당은 노사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는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길",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을 바란다고 했다.

“투쟁의 ‘투’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 일만 알지 남의 일, 부당함,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요. 내 일 하기에다 바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야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른 투쟁도 봤고요. 다른 세상도 봤어요. 과거의 투쟁으로 일군 과실을 내가 누렸다고 생각도 했고요. 또 지금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문제들로 우리가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을 여기 옥상에서 만났죠. 투쟁하면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해요.”(박정혜님, 2025.8.29 뉴스민 기사 인용)

8월 29일, 가마우지의 날과 30일 양뿔사초의 날 양일 동안은 천안역에서 평택시청까지 걷고, 대추리 평화마을의 황새울기념관에서 묵었다. 대추리 평화마을은 2006년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추방된 대추리 주민들 일부가 새롭게 조성한 마을이다. 대추리 주민들은 세번을 추방 당했다. 1942년 일본이 공군 비행장을 만든다고, 1952년에는 미군이 미군기지를 세운다고 쫓겨나고, 그 기지 주변의 갯벌을 밭으로 일구고 길을 직접 내며 가꾼 것이 이전 대추리였다. 그 마을을 2000년대에 또 한번 미군 기지로 뺏길 위기에, 주민들은 사력을 다해 싸웠고, 있는 힘껏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내주었다. '황새울'이라 부르던 그들의 손으로 일군 황금빛 논밭을.



기념관의 계단참에 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아팠다. 실제로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새,사람행진단의 평화바람은 그때 대추리에서 주민들의 투쟁에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다. 신부님이 그러신 적이 있다. 자신은 평생 지는 싸움만 해왔다고. 대추리에, 그리고 용산 참사때, 제주 강정에, 내가 마음에만 걸려하고 결눈으로만 봐왔던 현장에 항상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 어쩌면 질 것을 알면서도, 지는 자들의 옆에 있으려고, 그들이 너무 외롭지는 않게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들 덕분에, 누군가 있구나, 하고 나는 너무 얽치 없게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건 그들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얼마나 큰 용기가, 결심이, 괴로움이 필요한 것이었음에도, 계속 마음먹고 또 마음먹고.. 떨치고 일어나고...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그렇게 항상 누군가의 손을 잡던 이들이, 이제는 수라갯벌에 들어설 신공항을, 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막아 큰뒷부리도요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행진 동안 매일 수라의 생명들을 나무에 그려 새기고 계신 신부님은, 수라갯벌의 모든 생명들을 다 새기고 싶다 하신다.

새사람행진에서 환경과 평화 운동, 노동과 농민과 동물권 운동은 분리될 수 없이 한데 엮여간다. 어쩌면 이 모두는 자기 설 땅, 자기 살 삶의 자리의 이야기다. 자기 땅, 자기 삶의 자리를 자본의 필요나 군사적 목적으로 빼앗겼던, 혹은 빼앗긴 이들은,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 없이도 알 것이다. 아무도 없다는 소외감 속에 고립되어간다는 것이, 자기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인종이든 혹은 어떤 종이든,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서로 처지를 아는 이들이 서로를 알아줄 수 있다면, 손 잡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새,사람행진은 이제 남태령을 향해간다. 지난 겨울 시민들이 법의 통제를 뚫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곳에서, 무조건적인 인간과 성장 중심의 사회를 넘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행진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는 사회는, 함께 걷는 여정에서 올 수 있을 것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못생명이 우글우글" 새,사람행진단의 외침

행진 11일 차인 23일 세종에 도착한 '새,사람행진단'은 군산미군기지 확장을 막고 팽나무를 지키기 위한 56차 팽팽문화제를 진행했다. 그리고 24일 다시 떠날 행진을 위한 재정비를 하고, 25일 오전 8시 세종 금암삼거리에 모여 대모잠자리 수라의 외침을 함께 낭독하고 이제 서울법원까지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

행진단은 국토부로 가는 도중 세종보 상류에 1년 넘게 세종보 해체를 위해 세종충북 환경단체가 투쟁중인 농성장에 들러 점심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보가 홍수와 가뭄 해결도 하고, 배를 띄우고 친수도시를 만들고 4400명이 1년간 쓸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보를 세워 물을 가둔 것. 이는 전라북도의 만능 도깨비 방망이 새만금 사업과 닮아 있었다.

서각기도를 하며 행진해 온 문정현 신부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못생명이 우글우글"이라는 글을 새긴 서각을 선물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서 행진하는 걸 보고 함께 하게됐다는 고양에서 온 류소연씨는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울퉁불퉁하고 제 각각인 새모자와 깃발, 몸자보 등이 너무 좋았고, 행진할 때는 사람만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걸을 수 있어 참 좋다"며 행진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공항을 지으면 무조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발보다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수라갯벌을 보존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라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같이 걷는 것만으로 연대가 될 수 있고,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진은 정말 멋진 경험"이라며 행진 참여를 권하기도 했다.

전주MBC라디오의 목서윤 기자는 행진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목서윤 기자는 "새,사람행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 더운 날 전주에서 서울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팔로우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진단의 힘에

대해 설명했다.

"행진 뒤편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덥고 힘든데도 발걸음이 되게 경쾌하다. 손뼉도 치면서 울동도 하면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게 하나의 풍경으로 예쁜 그림처럼 느껴진다. 행진단 자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원동력이 되어서 힘을 내게 하는 것 같다."

행진단과 발을 맞춰 가면서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 목서윤 기자는 "이 과정이 고되지만 즐겁고, 보람된다. 매일 참여하지 못해도 행진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며 발랄한 웃음으로 말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하는 이날 행진에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싸우고 있는 제주의 강정 지킴이들도 함께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온 인해서는 "충북이 고향인데 금강을 바라보면서 세종에 들어오는 게 감회가 새로웠다. 세종시에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1년이 넘도록 세종보를 트자는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몽클하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도민 과반수가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도지사가 바뀌어도 모두 똑같이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 새만금신공항이 군산미군기지 확장인 것처럼 제주 제2공항도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공군기지를 지으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기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포함해서 제주 남쪽에 레이더 기지, 동쪽에 공군기지 등 제주를 기지화하려고 한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보존해야 한다."

'금강이 흐르는 농성장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 행진해 온 이들은 세종 정부청사에 다다르며 환경부와 국토부를 향해 새만금신공항 부동의와 백지화를 목소리 높여 외쳤다.

바로 이어 진행된 4시 새만금신공항 규탄 국토교통부 규탄 집회에서는 미군기지확장전략이자 또 하나의 무안공항참사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법원의 취소 판결을 강력촉구하며 규탄발언과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새,사람행진단의 딸기 행진팀장은 "오는 9월 5일 남태령을 넘어 서울에 도착한다. 윤석열 내란 탄핵의 열기에 이어 큰뿔부리, 못생명, 인간, 비인간이 함께 넘어 개발과 성장론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참여를 비롯해 간식과 도시락, 숙소, 그리고 물과 식사 등 너무 많은 각각의 연대로 행진에 동참하는 모든 단체와 활동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행진단은 비가 예보된 26일에는 국토부에서 조치원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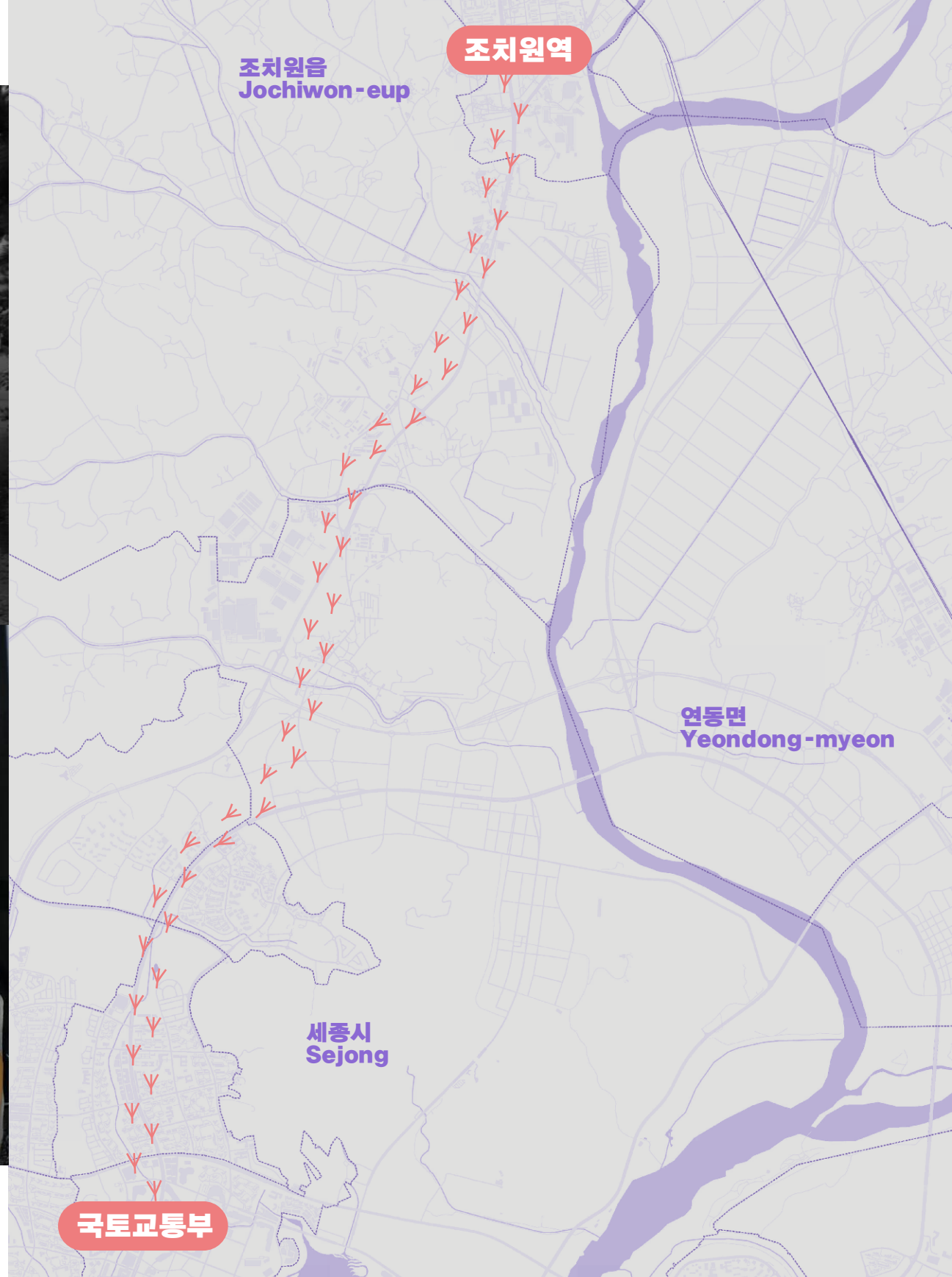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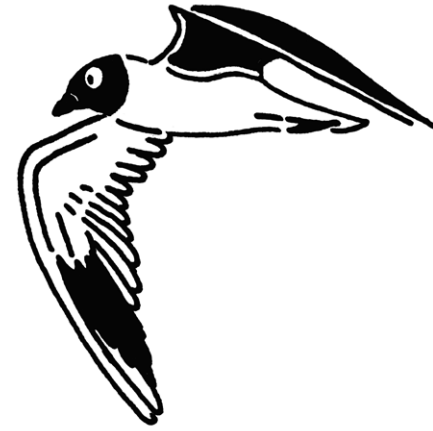
©TONY

250826

검은머리갈매기의 날



검은머리갈매기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검은머리갈매기의 날입니다

4월의 어느날

수라갯벌 남쪽에 있는 방수제를 걷기 시작 했을 때 갑자기 뵙! 뵙! 하고
경고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니 검은머리
갈매기 한 쌍이 위협하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라갯벌의 후미진 방수제
어딘가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발걸음을
옮기니 소리가 잦아 들었습니다. 한숨을 돌릴 때 쯤 또다시 어디선가 두 쌍의
검은머리갈매기가 경고음을 내뿜습니다. 겨우 몇발짝 더 가다 되돌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맹렬히 우는 검은머리갈매기들을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번식을 하러 한국을 찾습니다. 번식기에는 머리부분이
검게 변해 검은머리갈매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되었지만 한국 서해안 갯벌의 대규모 매립과 개발은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라에는 많은 갈매기가 살고 있습니다. 팽이갈매기, 쇠제비갈매기,

재갈매기... 갈매기 종류도 이름도 이렇게 다양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니 서로의 차이가 눈에 들어 옵니다. 이름을 모를땐 그저 새와
풀만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름을 알게 되면 갯벌 또한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존재가 갖는
차이와 다양성이 온전히 존중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라갯벌에 서면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서로를 알아가고 또
차이를 배우며 우리의 연대를 가꿔 나갑시다.

그리고 이 발걸음들이 모여 자본의 이윤보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만들어 갑시다.

비가 와도 춤추며 노래하며 행진은 계속된다

언제 그렇게 무더웠냐는 듯이 새벽부터 천둥번개에 폭우가 쏟아졌다. 오늘(26일) 행진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새,사람행진단(아래 행진단)에게는 비마저도 무색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행진은 시작될 것이었다.

국토부 앞, 다행히 큰 비는 잦아들었고 행진단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잘 걷기 위한 스트레칭을 했다. 오늘 수라의 외침은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는 한국에서 번식하는데 이 시기에 머리 부분이 검게 변해 검은머리갈매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멸종위기종이지만 한국 서해안 갯벌의 대규모 매립, 개발로 이들의 서식지는 파괴되고 있다. 행진단은 매일 매일 새로운 생명들이 새만금신공항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고, 사람 또한 그 처지가 다르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전북 장수군의 장계성당에서는 성당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초록색 조끼를 입고 참여해 행진단의 환영을 받았다. 또 작은 물때새 등이 얇은 깃발, 검은머리갈매기 모자와 장난감 등 행진단과 참가자가 제작해 온 다양한 물품을 들고 행진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품들이 행진에 나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먹거리를 준비해온다. 오늘의 점심은 비정규노동자의 쉼터 꿀잠에서 준비해줬다. 식사와 과일, 커피를 비롯한 여러 음료, 떡까지 행진단은 맛있고 푸짐한 점심을 먹고 기분 좋은 휴식 시간을 가졌다.

오는 31일은 새,사람행진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아래 공동행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 연대의 날'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수라갯벌을 보존에 연대하는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연대 메시지를 모으고 있는 공동행동의 홍보국장 김나희는 세계 연대의 날의 의미를 이야기해줬다.

"도요새는 전 지구를 집으로 삼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곳을 전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새는 서해안 갯벌, 알래스카, 뉴질랜드 어느 한 곳이 파괴되면 안 돼요. 전 지구가 하나의 집인 위대한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가 '우리의 개발로 죽어가고 있다, 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지구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고 새,사람행진도 도요새와 같은 관점에서 시작되었어요.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큰뒷부리도요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지금도 큰뒷부리도요가 서해안 갯벌로 떠나가는 날에 의례를 치러요. 새의 관점에서 행성을 본다면 국제적인 시아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새,사람행진이 국제적인 행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8월 31일에 국제 연대의 날을 기획하게 되었어요."(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

이들의 '공항 건설이 아닌 갯벌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달라'는 요청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응답을 보내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저의 편협한 생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일 먼저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간다에서 가장 먼저 메시지가 왔어요. 우간다의 어린이들이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어린이들이 'Save our sura, Save our shore birds'라고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보고 마음이 짱했어요. 그 뒤로 독일, 호주, 미국, 아일랜드, 르완다 등 갯벌을 생각하고 공항을 반대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스테이그라운드(Stay Grounded)라는 전 세계 200개 단체가 연합한 항공 반대 단체가 있어요. 이곳에서 새만금신공항 부동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송했어요. 이것도 8월 31일 세계 연대의 날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벌써 15일 차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행진단은 멈추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서울로 향하고 있다. 내일은 조치원역에서 전의역까지 15Km가 넘게 행진한다. 27일 일정 후 행진단은 긴급연대 활동으로 구미로 간다. 고용승계, 먹튀기업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옴티칼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뜨거운 여름을 두 해나 견디며 불탄 공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 박정혜를 응원하는 문화제에 참여한다. 행진단도 뜨거운 아스팔트를 걷느라 힘들지만 노동자의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힘을 보태겠다 나섰다.

새,사람행진단은 새와 노동자 모두 같이 살자는 행진이다.

'새, 사람 행진'에 관심을 갖자!

통합 생태적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폭우 피해에 더해 무더위가 겹치니 서산 시민들의 안위가 걱정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기후 재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화가 난다. 풍요로운 이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가난한 생명체들은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간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부당함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의 울부짖음에 관심을 기울이자.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태 학살이 자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중의 하나를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다. 지난 8월 12일(화)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새, 사람 행진 출발 기자회견이 있었다. 9월 11일(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촉구하며 서울행정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새, 사람 행진은 매일 다양한 새의 이름을 명명한 날을 정하고, 15km 전후의 구간을 걷는다. 동시에 전북지방환경청 앞 천막농성장을 지키는 이들과 서울행정법원 앞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어서 꾸역꾸역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오늘도 힘을 낸다.

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도 가능하니 한끼 식사나 물 한 모금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 지지와 격려를 표현하자.(후원 계좌 : 농협 351 0390 7008 93 문정현)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010-2612-2322(오이), 010-6795-1202(덕이)로 문의 바란다. 또한 SNS로 올라오는 다양한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인들에게 소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일상으로 끌어들이자. 그럴 때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지 않고 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지도 2달을 넘겼지만,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도 지극히 인간적이다.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방법은 다른 생명체와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인데도 말이다.

통합 생태적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분리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 만능열쇠가 아닌데도 인간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새, 사람 행진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아집에 경종을 울린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한 것처럼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공사 관계자를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사업이다. 그러니 제발 생태적 회심을 통해 생태 문명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자. 이렇게 새가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자.





©이재각

250827

철계의 날



©TONY



©TONY



칠게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칠게의 날 입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 있는 존재들의 아름다움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칠게는 아마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서남해안 어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서생물중 하나로 갯벌에 타원형의 굴을 파고 살아갑니다.
갯벌의 유기물을 두 집게발로 열심히 먹는데, 이는 갯벌의 정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면 일순간 갯벌로 사라져 버리는 게, 그들이
바로 칠게 입니다.

칠게는 사각형에 가까운 몸통에 집게발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여행해 새만금 수라갯벌에 도착하는 도요새들의 중요한 먹이이자
낙지도 좋아해 낙지 잡이의 미끼로도 흔하게 사용됐고 어촌의 밥상에는 언제나
칠게가 있을 정도로 언제나 새와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 칠게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먹이가 사라진
갯벌에서 도요새들 역시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새들은
칠게가 없어진 갯벌에서 무엇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었을까요. 칠게가
사라지고 조개가 사라지고 새들이 사라지고 어민들이 사라졌습니다. 흔하디
흔하던 한 존재가 사라지자 연쇄적으로 또 다른 존재들이 사라졌습니다.
흔해서 잘 모르던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칠게를 통해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라갯벌의 해수유통이 부분적으로 확대되면서 칠게 구멍이 종종 관찰 됩니다.
물이 많이 빠진 갯벌을 한참 바라 보면 칠게가 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심히
씩어가는 갯벌을 긁어 모아 먹고 뱉어 냅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몸뚱이로
거대한 갯벌을 열심히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여름철 홍수예방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배수갑문을 통해 내부의 수위를 낮추는 인간들에 의해 어제까지도
생생히 살아있던 칠게들은 일순간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모습만 남긴채
사라집니다.

죽이고 살리고, 영겁의 업보가 수라갯벌에 쌓입니다.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수라갯벌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존재가 자취를 감추면 그물처럼 얽힌 갯벌의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칠게가 다시 갯벌을 가로지르는 상상을 해 봅니다. 게구멍으로 쭉쭉 숨어드는
칠게, 두 집게발을 번쩍 드는 칠게, 서로 엉켜붙은 칠게, 열심히 집게발로
갯벌의 유기물을 뜯어먹는 칠게. 그 흔한 모습을 되돌리는 일이 어찌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큰 행동이 아닐까요.

갯벌이 사라지며 등장한 기후재앙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단 하나 남은 수라갯벌을 지키는 일은 성장중심, 개발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성찰입니다.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발중심의 사회, 성장중심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준엄한 경고여야 합니다.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하라!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취소판결 하라!
새, 사람 함께 살자!





▲박정혜 노동자 올라다 보시는 문정현신부 © 새사람행진단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구미에 도착한 행진단

행진 16일차, 오늘은 칠게의 날이다. 마침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참여했는데 이성실씨가 칠게에 대한 이야기로 수라의 외침을 열어줬다.

"칠게는 등딱지가 직사각형이에요. 분홍색이나 하늘색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서 얼른 알아볼 수 있어요. 수라갯벌에 보면 칠게잡이 통이 짝 펼쳐져 있지요? 수라갯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것이 칠게예요. 어민들이 기다란 통과 연결된 양동이에 칠게를 모아 잡아서 팔았던 게입니다."

행진단은 칠게가 다시 갯벌을 가로지르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의 행진을 이어갔다. 오늘은 전국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발걸음을 보태며 긴 행렬을 만들었다. 녹색연합의 신규활동가는 "날씨가 덥긴 하지만 좋아하는 노래도 나와 행복하게 노래부르며 걸을 수 있었다.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겠다. 또 서울에서 만나자"며 마음을 전했다.

행진단은 날이 갈수록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신명나게 행진을 한다.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오늘의 개미고개를 줄지어 신나게 밀고 끌고 올라서며 어제보다 무려 1분 먼저 행진을 마쳤다고 한바탕 크게 웃기도 했다.

전의역까지 행진을 마친 행진단은 바로 구미로 향했다. 구미에는 불탄 공장 위에서 598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 노동자 박정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해외 자본(기업)의

먹튀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뜨거운 여름을 두 번째 나고 있는 것. 행진단은 '박정혜는 옳다', '새는 하늘로 박정혜는 땅으로',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가 적힌 반짝이는 피켓을 만들어 박정혜 노동자에게 응원을 보냈다.

'직녀에게'를 불러 문화제를 연 문정현 신부는 "국민의 한 사람이 600일이 다 되도록 저 옥상에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박정혜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정혜 노동자는 "문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다. 새,사람행진단에서 걷고 계시는 걸 SNS에서 봤는데 행진을 하다 옵티칼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행진단 가는 길 응원하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란다. 수라갯벌에서도 새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곁으로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고공에서 인사를 전하며 문화제를 마쳤다.

행진단은 파괴와 착취가 아닌 공존과 평화, 평등을 위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길 희망하며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 했다.

※ 덧붙임 - 한미정상회담 미군기지 소유권 요구에 대하여

"26일 오전 1시 15분(한국 시간)에 시작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돌연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비록 위험적 소지도 있고 미국의 방위비 협상을 위한 전략적 의도라 짐작하지만, 군산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맞닿아 있는 지금, 그리고 트럼프의 돌발적 행보를 보았을 때 앞으로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 일각에서는 중국 봉쇄를 겨냥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장. 그렇기에 새,사람행진단은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금시기,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

유틸리티 문화제 _ 고용승계 보장하라!

새, 사람, 행진

우리는 만나야 한다

고용승계

2025 08 27 수 19:00 한국유틸리티하이테크 공장 안 (경북 구미시 4공단로 7길 53-29)

모임
문정현신부님과 <새, 사람, 행진단>
양기창 (노동자 시인)
오지은 (知音)
배태선 (민주노동)
이광일 한승희 (공양)
나무 (기획 진행)

새, 사람 만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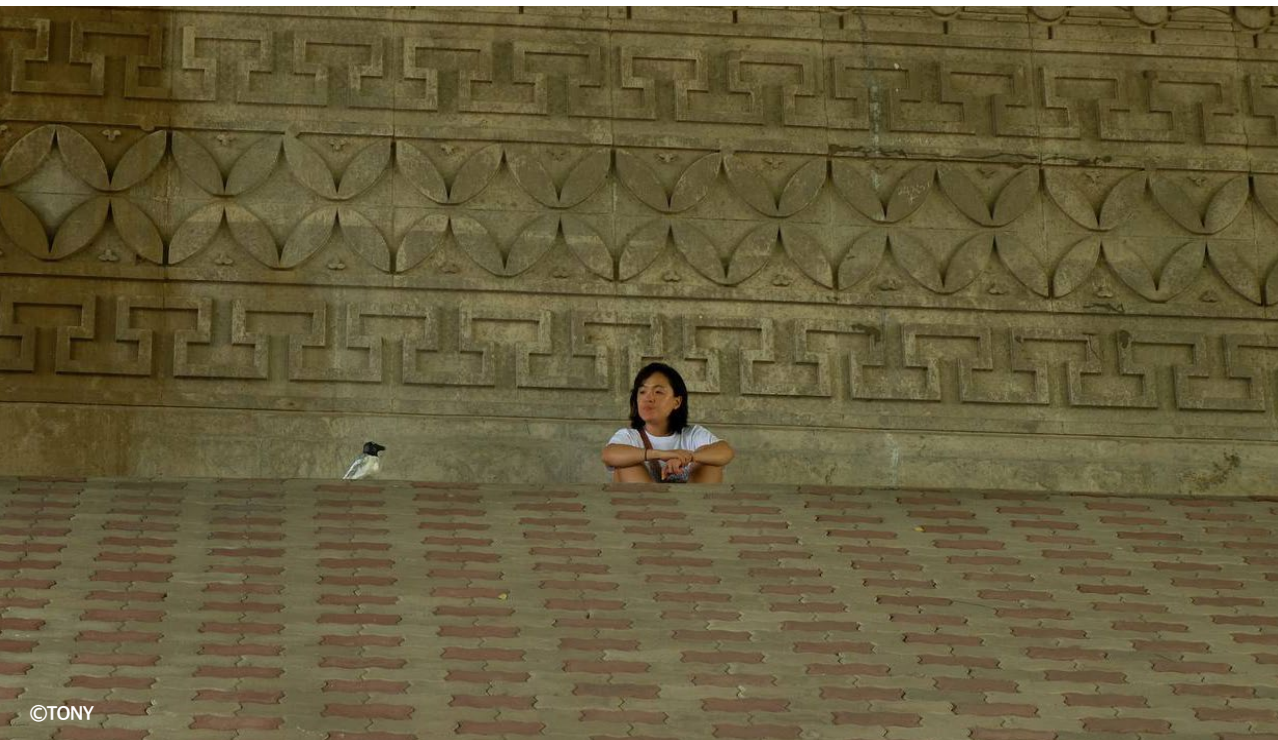




©TONY

250828

줄장자뱀의 날



©TONY



©TONY



천안시
Cheonan

홍타령관

소정면
Sojeong-myeon

조치원읍
Jochiwon-eup

전의역

줄장지뱀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줄장지뱀의 날 입니다.

남수라 마을에서 출발해 바닷물이 드는 물끝선까지 가려면 꼬박 두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마른 갯벌을 지나 염습지로 들어서면 어디에선가 느껴지는 분주함 움직임이 포착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갈대밭을 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줄장지뱀 입니다.

낮시간에 일광욕을 하길 좋아하는 줄장지뱀은 몸길이는 4센치 내외 이지만 꼬리는 몸통의 2배에 가깝습니다. 꼬리가 아무리 길어도 전체 길이 20센치 작은 도마뱀 입니다. 이름처럼 긴줄무늬가 등에 세로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곤충을 먹는 줄장지뱀은 수라갯벌의 또 다른 포식자 황조롱이같은 맹금류의 먹잇감이 됩니다. 중간 포식자인 줄장지뱀이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균형을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줄장지뱀의 먹이가 있고 또 줄장지뱀을 먹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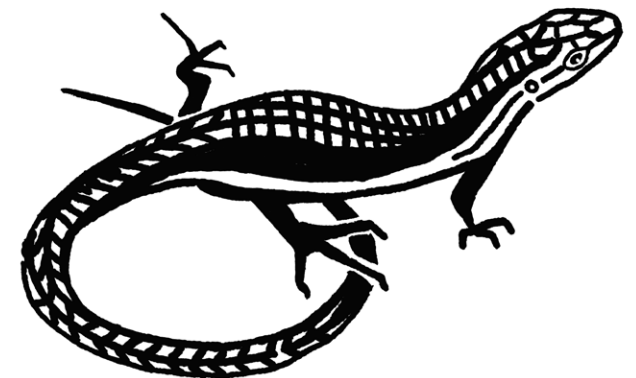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 중에 수라가 갯벌이냐고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줄장지뱀과 대모잠자리등이 살아가는 염습지도 갯벌로 봐야 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서 염습지로 그리고 갯벌로 이어지는 흐름은

오히려 개발되기 이전의 원형적 갯벌모습입니다. 염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이 또 다양한 새와 포유류들을 불러 모으고 덕분에 더욱 풍요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수라갯벌의 모습이 바뀐 것을 두고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수라를 갯벌이라 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재판부는 염습지 형성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수라갯벌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수라갯벌의 첫 모습은 무엇이였을까요? 1940년 일본군 기지가 들어서고 그후 미군기지가 되기 전에는 금빛 모래가 넘실거리고 해송이 자리한 아름다운 갯벌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금빛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어린시절의 촉감이 노인이 되어서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의 추진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난 20년전의 판결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무참히 사라졌는지 행정법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국책사업추진이 만든 갯벌과 생태계 파괴를 이제라도 멈출수 있는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심해도 너무 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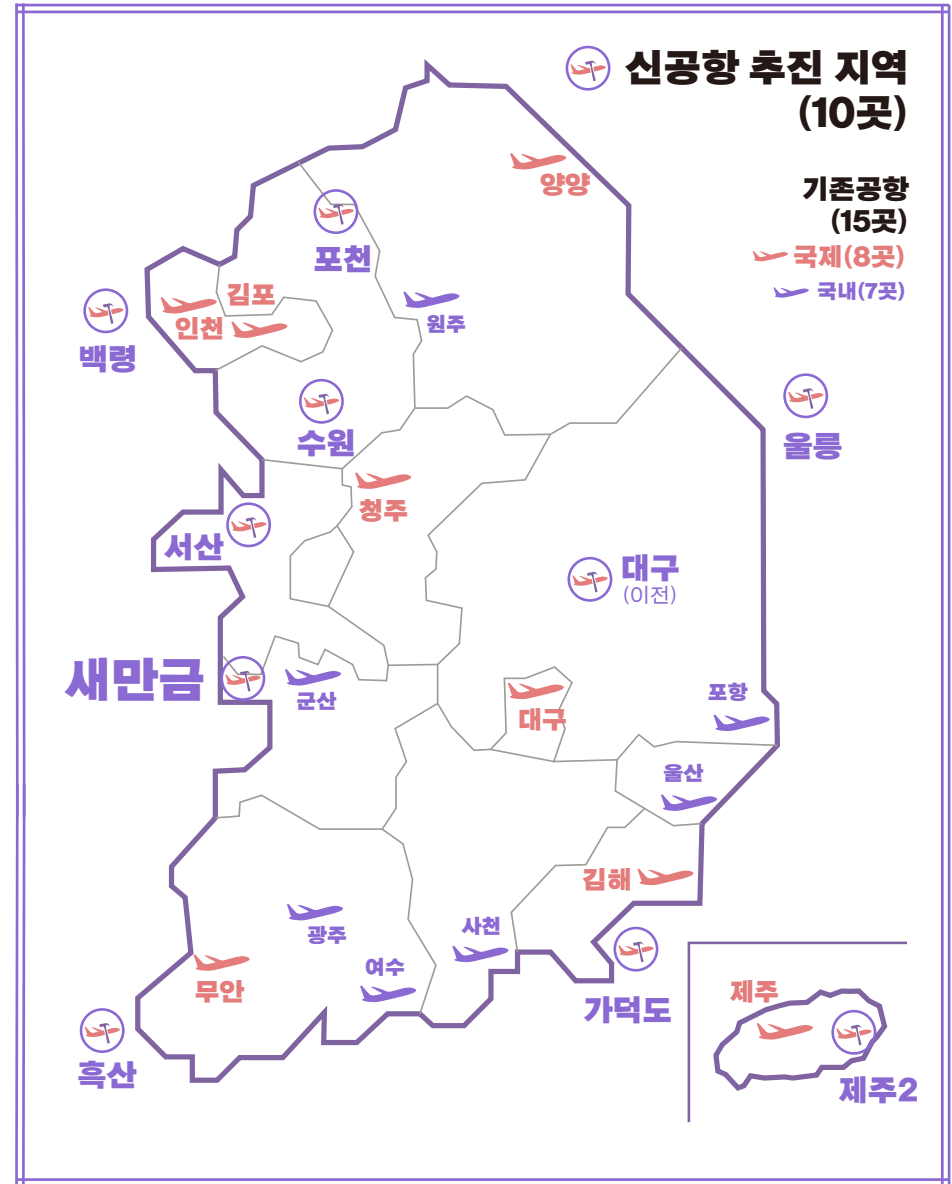
(신) 전국 공항 지도



11개 적자공항 옆에
10개 신공항을
또 짓는다고?

왜 이러십니까?
기후재난시대에

모든 신공항 백지화!



1만7천km 이동 중 딱 한 번 쉬는 곳... 큰뒷부리도요 휴식처가 위험하다

내가 '새사람'이 됐나 보다!

땀별 아래 아스팔트를 딛는 걸음이 가볍다. 폴짝폴짝 뛰고 덩실덩실 춤춘다.

'새, 사람행진'은 사람을 '새'로 만들고, 사람을 '새로' 만든다.

지난 12일, 전북지방환경청(전주 혁신도시 소재)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새, 사람행진단'은 서울행정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선고일인 9월 11일에 며칠 앞서 도착해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을 바라는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5일 행진단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뜨거운 발언과 노래, 그리고 춤을 펼쳤다. 다음 날인 26일, 비가 내려도 행진은 계속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뜬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매년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한다. 오전부터 30도가 넘는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태양광선이 따갑고 무겁다. 씩씩하던 걸음도 몇 km를 지나면 쉴 곳을 찾는다. 행진단 후미 차량에서 꺼내온 물과 간식은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할 수가 없다.

큰뒷부리도요가 6천여km 날아가기 전 들르는 수라갯벌

하물며 수천Km를 날아와 처음으로 갖는 휴식은 얼마나 간절할까.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1만km 넘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를 출발해 한 번을 쉬지 않고 8여 일을 날아온다. 번식지인 알래스카를 향해 가기 전에 머무는 단 한 번의 휴식처가 새만금 수라갯벌을 포함한 한반도의 서남해안이다.(관련기사 : 호주에서 금강까지, 8400km 날아온 큰뒷부리도요 <https://omn.kr/23zm8>)

새만금 수라갯벌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충남의 서천갯벌과 전북의 고창갯벌 사이에 있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모두 없어진 줄 알았던 갯벌이 아직 남아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를 통해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새만금신공항 예정지다. 곧 매립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갯벌은 세계적으로 귀한 탄소흡수원이니 보존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현재 수라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내부에 있어 규칙적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갯벌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말한다. 그러나 수라는 갯벌이었고 지금도 갯벌이다. 현재 빨갯벌보다 탄소흡수율이 높은 염생식물이 자라는 염습지 모습이 많지만, 상시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수년 안에 국토부가 말하는 갯벌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2022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전라북도는 현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610배 달하는 높은 조류충돌 가능성이 있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새와 사람, 비행기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이 계획, 막을 수 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로 막을 수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막을 수 있다. 천막농성은 곧 1300일이 돼 간다.

사람만큼 큰 큰뒷부리도요가 '새, 사람행진'의 선두에 선다. 현대의 인간은 큰뒷부리도요와 같다. 우리는 더 이상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다 그곳에서 죽지 않는다. 전생을 거쳐 전국과 전세계를 누비며 살고 있다. 길가는 새와 길가는 사람에게 낯선 길은 어렵다. 내비게이션을 손에 쥐고도 이럴진대, 수천 년 동안 DNA에 기록된 정보로 날아오는 새들에게 대체서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라갯벌이 매립된다면, 그곳을 향해 간신히 날아온 새들은 다른 곳을 찾지 못한다.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해 죽는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 붉은어깨도요가 그렇게 죽었다. 국내에 흔하게 보이던 그 새가 현재 멸종위기종이 됐다.

도요새를 자신의 조상이라 여기고 있는 뉴질랜드 '황아누이 쿠아카' 공동체는 이번 8월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라갯벌 보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국토부는 수라갯벌을 매립해도 인근의 '대체서식지'로 새들이 옮겨갈 것이라고 지금도 주장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재판관이 아닌 우리는, 환경청 공무원이 아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길을 나선다.
"법은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짐 하나를 붙들고 길을 나선다.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새, 사람행진단'은 휴식과 정비의 시간을 가지며 잠시 행진을 멈추고 군산 팽팽문화제에 참석했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사람이 쫓겨난 하제마을에 남은 600년 팽나무를 지키기 위한 문화제다. 그곳에서 신동엽의 시 '금강'의 일부를 읽었다.

신동엽(1930~1969) 시인은 1894년 동학혁명, 1919년 3·1만세혁명, 1960년 4·19혁명에 이어 다시 혁명이 올 것을, 다시 만날 것을 외친다. 자본의 시대에 생명의 목소리는 무력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생명의 혁명을, 사랑의 혁명이 올 것이다.

사랑을,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새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오리라. 갈고 다듬은 우리들의 푸담한 슬기와 자비가	겨울 속에서 봄이 싹트듯 우리의 마음속에서 연정이 잉태되듯 조국의 가슴마다에서, 혁명, 분수 뿜을 날은 오리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세상 쟁취해서 반도 하늘 높이 나부길 평화, 낙지밭에 빼앗김 없이.	-신동엽, '금강' 일부

우리 사랑밭에
우리 두레마을 심을, 아
찬란한 혁명의 날은
오리라.

행진단은 31일엔 평택 진위역에서 세계 연대의 날을 기리고, 9월 5일엔 남태령을 넘어가고, 9월 6일은 광화문에서 생명지킴이대회를 함께한다. 9월 8일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월 11일까지 서각기도를 이어간다. 새 사람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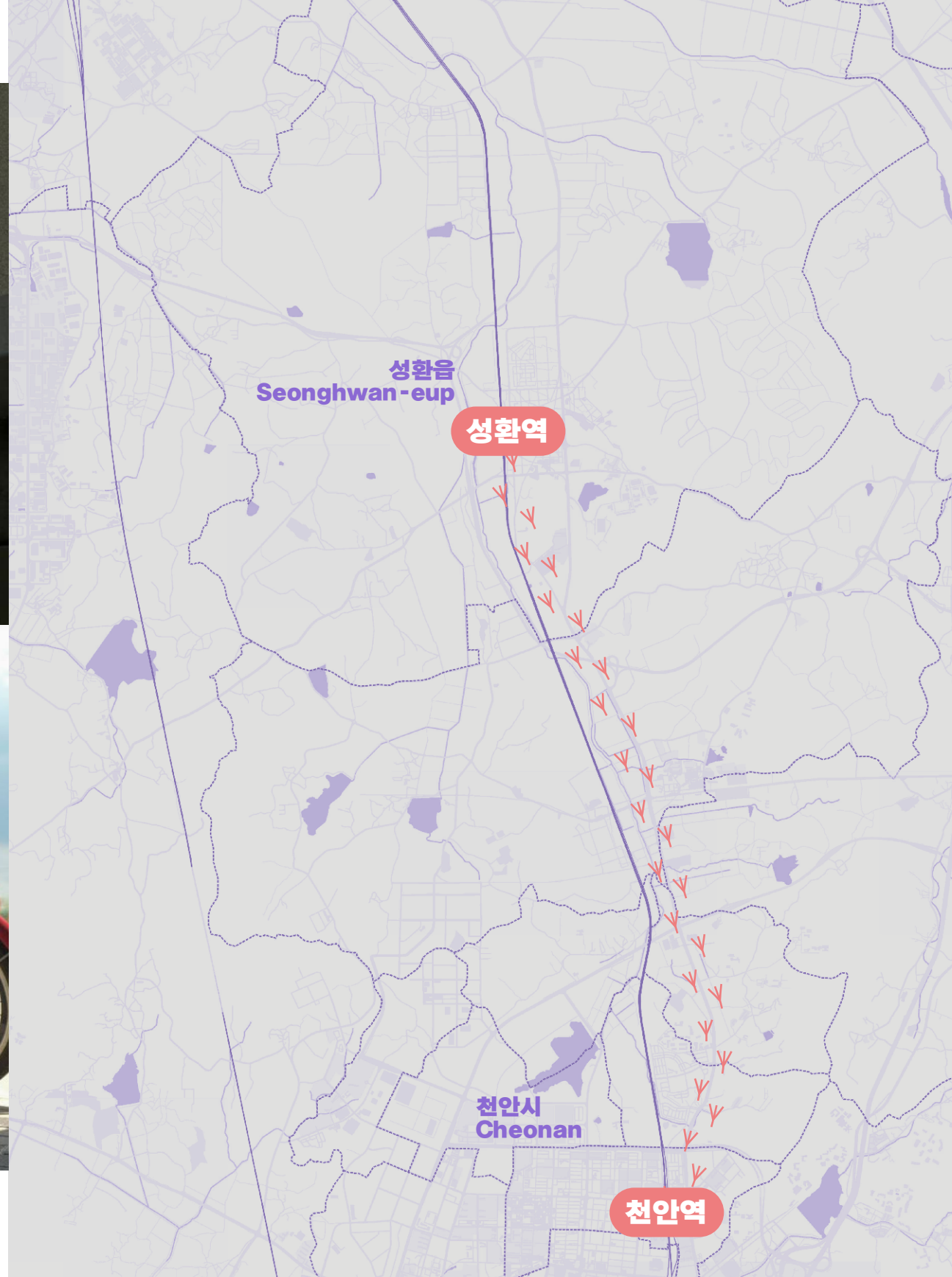




©TONY

250829

가마우지의 날



가마우지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마우지의 날 입니다.

가마우지는 전 세계적으로 32종이 살고 있고 한국에는 3종이 있는데 오늘은 수라를 오가는 민물가마우지를 소개 합니다. 수라갯벌에서 서쪽에 위치한 옥녀봉에는 민물가마우지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채석장으로 쓰이던 곳이 문을 닫자 가마우지들이 찾아왔고 현재 1만 7천개체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들은 부지런히 아침이면 수라갯벌과 새만금 전역으로 출근을 하고 해가 질 무렵 옥녀봉으로 퇴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깃털로 뒤덮여 있는데, 부리쪽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수라갯벌에서 가마우지들을 만나면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음 땡! 놀이라도 하고 있는가 싶지만 깃털이 물에 젖지 않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가마우지만은 물에 젖는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날개를 활짝 펼친 채 햇볕에 몸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젖는 깃털은 가마우지들을 탁월한 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깊은 물속에 1분이상 잠수 할 수 있고 갈고리처럼 휘어진 부리는 큰 사냥감도 놓치지 않습니다. 본래는 겨울철에 찾아오던 철새였던 가마우지는 이상기후로 기온이 높아지며 텃새가 되었습니다.

텃새가 된 가마우지는 개체수가 급증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천적이 없어지고 인위적인 하천정비와 보 설치로 물길이 단순해 지며 가마우지가 사냥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한 점등을 꼽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사는 가마우지들이 산성도가 높은 똥을 싸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어업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2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텃새가 된 이유도 갑작스럽게 개체수가 급증한 이유도 가마우지 스스로 만든 것은 없지만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간척과 개발로 사라진 새들이 있는 반면 더 늘어나 버린 새들도 있는 셈입니다. 보호해야 할 새들을 지키자면 개발을 중단해야 하지만 정부는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가마우지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새들은 쫓아 내려고 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지으면 서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거라고 말하는 국토부의 인식은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서식지가 사라지면 그 주변으로 더 많은 조류들이 밀집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위험은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는 새만금 취소 소송을 통해 정부의 자가당착적 개발행정이 중단되길 희망합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회는 우리를 기후재난 시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법원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갖 새들과 나무들 모두

행진 18일차, 오늘은 가마우지의 날이다. 본래는 겨울철에 찾아오던 철새였던 가마우지는 이상기후로 기온이 높아지며 텃새가 되었고,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수라갯벌이 주요 서식지가 되었다.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천적이 없어지고 인위적인 하천정비와 보 설치로 물길이 단순해지며 가마우지가 사냥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 가마우지의 산성도 높은 똥이 나무를 고사시키고 어업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2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지만 이를 새들만 탓할 수만은 없는 것. 인위적인 간척과 개발로 사라진 새들이 있는 반면 더 늘어나 버린 새들도 있음이다. 새,사람행진단(이하 행진단)은 기후위기시대, 새만금 취소 소송을 통해 정부의 자가당착적 개발행정이 중단되길 희망한다며 18일차 행진을 시작했다.

여전히 덥지만, 여전히 노래하며 춤추며,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걷고 걸었다. 주차된 차량 광고마저 이들에게겐 유쾌한 에피소드이다. '난 안 힘들다'는 광고 앞에서 딱하니 사진을 찍으며 지친 이들에게 웃음을 준 것.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라는 현수막을 지나면서는 오늘의 더위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행진단은 오후 2시 성환역에 도착해 타령으로 이색 소감을 나누며 즐겁게 행진을 마무리 했다. 천안에서 지인을 통해 행진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는 한 시민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갖 새들과 나무들

모두가 주인이라 함께 살아하는 게 이 세상인데 꼭 공항을 세워서 그들의 터전을 빼앗아야 하는지, 지구가 열탕화가 되어가는 데 꼭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한명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참 행복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청지역을 행진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사랑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큰 깃발을 들고 행진한 박형석씨는 행진하는 내내 바람에 깃발을 태워 펼쳐 들어 행진단의 박수를 받았다. 박형석씨는 "5일째 행진에 참여했고, 깃발은 3일을 흔들었어요. 행진도 즐겁게 했고, 깃발을 흔드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깃발을 8자로 흔들면 잘 펼쳐져요. 서울까지 모두 무사히 잘 가시고 새만금신공항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힘내서 투쟁! 그리고 남태령에서도 제가 꼭 깃발을 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는 약속을 남겼다.

행진을 마무리 하고서 엇그제 빛나는 피켓을 들고 연대다녀온 한국유평터칼 박정혜 수석부지부장이 고공농성 600일만에 땅을 밟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접했다. 노정대의 노사교섭 개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8.31 세계연대의 날을 기념해 계속해서 지구 곳곳의 연대 메세지가 도착하고 있다. 그저 전북지역만의 몇몇 활동가들만의 행진이 아니라 지구촌의 요구를 담아 지구적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진단은 8.31 세계연대의 날 3시 진위역으로 모여줄 것과 9.5 남태령 고개를 함께 넘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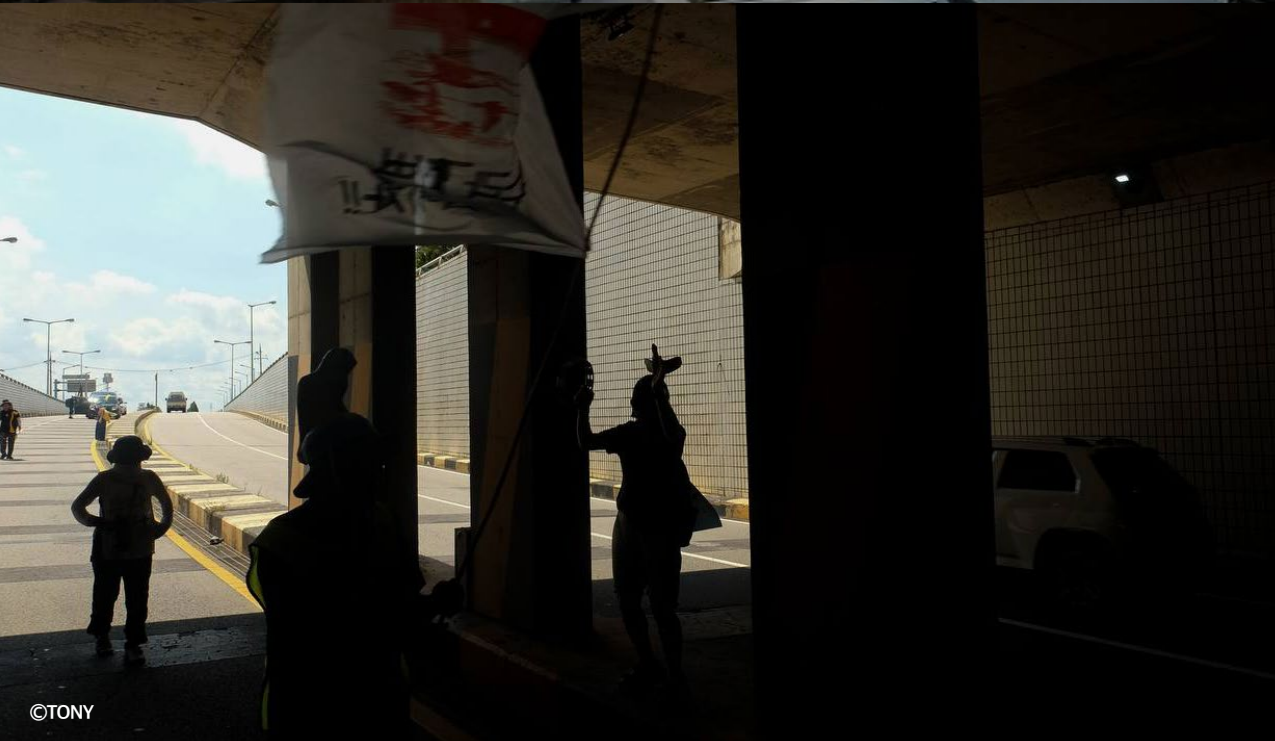




©일곱째별

250830

양말사초의 날



양뿔사초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양뿔사초의 날 입니다.

수라갯벌에 서면 봄여름에는 푸르게 가을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하는 습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뿔사초가 살고 있습니다. 사초는 습지에 주로 서식하는 풀로 한국에는 230여종의 다양한 사초가 있습니다.

그중 양뿔사초는 습지나 물가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 입니다. 주로 러시아 극동지방과 같이 북방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희귀한 사초 입니다. 양뿔사초는 산림청 보호 식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생육환경이 까다로워 균락으로 번식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수라갯벌에서 양뿔사초균락이 발견됐습니다. 대모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양뿔사초균락 역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수라갯벌 길라잡이' 교육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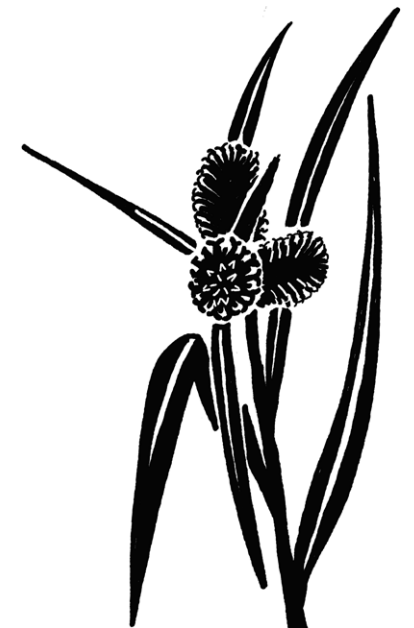
풀 하나 가지고 웬 유난이나 싶겠지만 양뿔사초가 갯벌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왜 수라갯벌에 양뿔사초가 자리잡게 되었는지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뿔사초는 왜 수라갯벌에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되기도 전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습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풀들은 곤충들의 훌륭한 서식지가 되고

곤충을 따라 다양한 저서생물과 조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양뿔사초처럼 귀한 식물 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다양한 습지 식물들 모두가 또 다른 생명들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수라갯벌의 생물다양성에 놀라게 됩니다.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는 시민들의 눈이 풍성한 수라갯벌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찾지 못하는 것을 시민들은 찾아내고 있으니 수라갯벌을 지키려는 열망은 보이지 않던 것도 보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밝혀내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생명 존중과 환경 보존이라는 국가 기관이 가져야 할 보편적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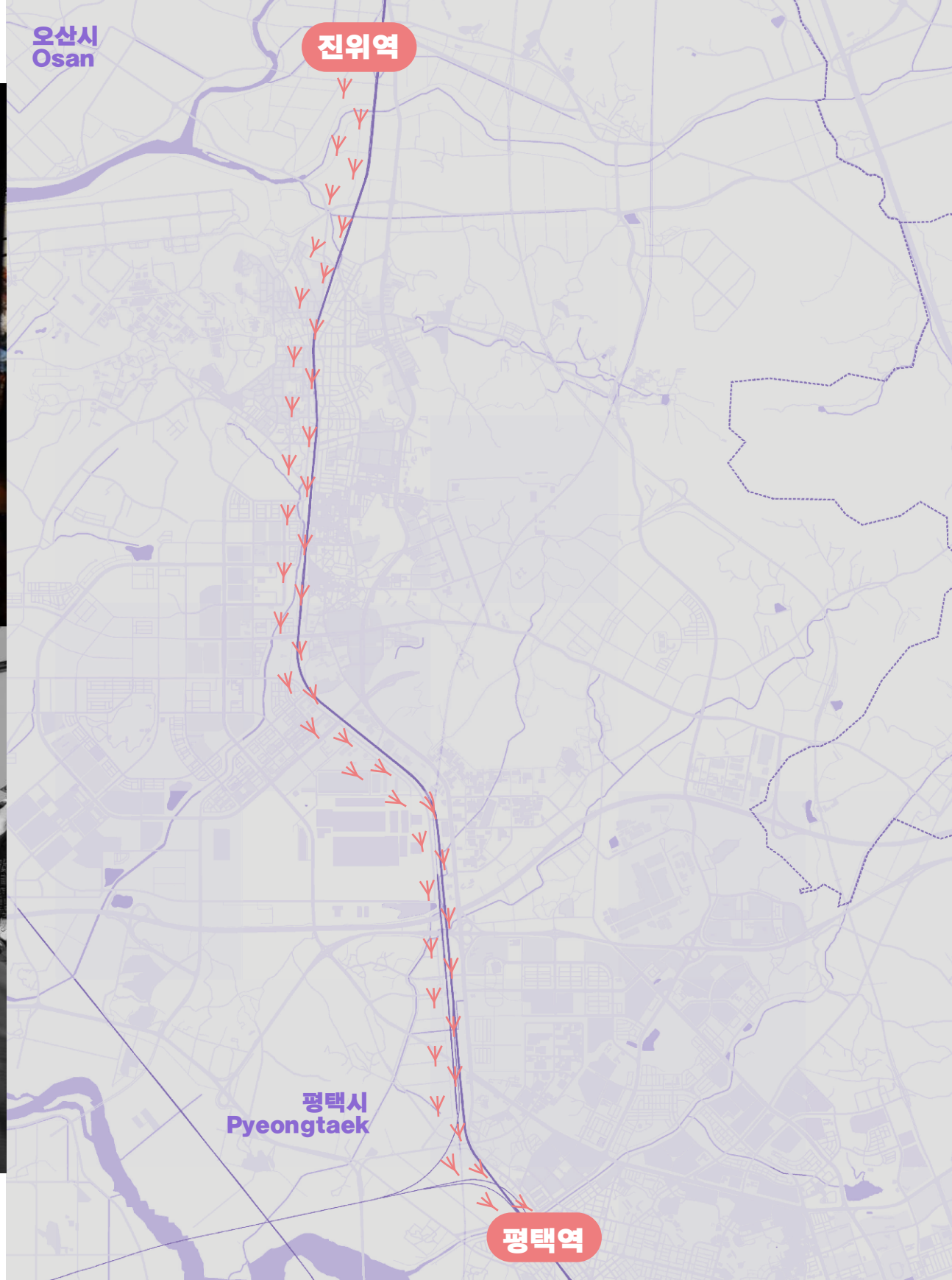




250831

황조롱이의 날

©이재각



황조롱이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황조롱이의 날입니다.

새, 사람행진 17일차 천안을 넘어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황조롱이가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밝은 갈색의 황조롱이는 순식간에 행진단 앞을 지나쳐 정지비행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맹금류가 서식하고 황조롱이는 도시근처에서도 종종 번식이 확인될 정도로 인간 사회와 가깝게 인연을 맺고 있는 맹금류중 하나입니다.

맹금류는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자신보다 크기가 작은 새부터 포유류, 어류, 양서류충류등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특히 황조롱이는 정지비행을 하는 능력이 있어 사냥감을 집중력있게 쫓아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낙아칩니다. 무서운 사냥실력이지만 실제로는 30센치 내외의 작은 크기입니다. 몸집의 크기와 상관 없이 아주 강력한 사냥 실력을 갖춘 것이죠.

황조롱이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되고 있는 새로 수라갯벌에서는 비교적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황조롱이는 텃새이지만 다른 맹금류들은 주로 가을이 되면 수라갯벌을 찾습니다. 독수리, 검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물수리등 다양한 종류의 맹금류들을 겨울철 수라갯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도요새가, 여름에는 저어새가, 가을에는 기러기와 오리, 겨울에는 독수리와 물수리가 찾아드는 수라갯벌은 사시사철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전세계 철새 정거장입니다.

아마도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기 전 새만금 갯벌 전 지역에 사계절 다른 새들이 찾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여전히 새만금 곳곳은 매립과 개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부는 새만금에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안쪽 매립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심겨진 소나무들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에서는 탐조와 야생동식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맹금류들을 위한 쉼대를 심어두고 맹금류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생명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을 수시로 파괴하고 수라갯벌에는 신공항을 짓는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인위적으로 매립한 매립지를 환경생태단지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환경생태단지가 될텐데, 굳이 갯벌을 매립해 단지를 조성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수라갯벌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남아 있는 갯벌의 보존에 대해 숙고하길 바랍니다. 갯벌은 8천년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파괴하는 것은 한순간이고 파괴된 갯벌을 복원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괴한 뒤 보존하겠다 말하는 이중적인 정부의 정책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e ara whānui a Tāne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 마오리 부족의 황아누이 쿠아카 공동체가 지난 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서한을 보내왔다.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의 마오리 이위(iwi, 부족)는 그들이 도요새를 따라 넓은 바닷길을 지나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에 왔다고 여긴다. 전통의 상징(tohu, 토후; 안내하다, 조안하다, 생명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다)인 큰뒷부리도요(Kuaka, 쿠아카)가 먼 길을 떠나 도달한 새만금에서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오리 사람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25년 전부터 새만금 사업 중단과 생명 수호의 뜻을 전해온 마오리 이위는, 다시금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파괴에 대한 우려와 수라갯벌의 보존의 뜻을 전해왔다.

마오리 전승에 따르면 도요새들은 매년 숲과 새의 신인 타네(Tāne)가 이끄는 넓은 길(te ara whānui a Tāne)을 따라 이동하며, 사후 마오리 사람들의 영혼도 그 신성한 길을 따라간다. 큰뒷부리도요(Kuaka), 붉은가슴도요(Huahou)가 자신들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마오리 사람들은 새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중요한 의식을 치른다.

특히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호주에서 길을 떠나 시베리아/알래스카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번 쉬는 경로를 보여주는데, 그 유일한 중간 기착지에 새만금 갯벌이 포함된다. 큰뒷부리도요, 그리고 마오리 이위의 관점에서 새만금 간척은 바로 자신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뉴질랜드에서 새만금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7-8일을 논스톱으로 기진맥진 날아왔는데, 매년 오던 새만금에 갯벌은 없고 썩어가는 마른 땅만 덩그러니 남아 있으니 큰뒷부리도요의 대부분은 아사하고 말았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2006년 이전에 4,175명이 관찰되던 큰뒷부리도요가 현재는 겨우 274명이 관찰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새만금 갯벌은 단지 한반도 서해에만 속한 곳이 아니라, 전 인류와 전 지구의 인드라망에 얽힌 곳이다.

마오리 부족의 황아누이 쿠아카 공동체는 2025년 6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보낸 서한에서 다시 한 번 전지구적 관점에서 쿠아카(큰뒷부리도요)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쳐 있는 철새이동경로 전체에서 쿠아카의 서식지를 보존해야 함을 호소한다. 쿠아카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들과 사람들을 연결해 왔으며” “이러한 연결은 현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를 따라 연결된 모든 공동체들이 쿠아카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수라갯벌의 경우, 쿠아카 서식지와 생태적 삶의 방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국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하고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새로운 이름으로 '테 아라 화누이 아 타네(te ara whānui a Tāne, 타네가 이끄는 넓은 길)'를 제안하고 싶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다. 미개하다고 멸시받았던 믿음들, 도요새가 인간의 조상이고 도요새가 떠나는 길을 따라 인간의 영혼이 따라간다는 믿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도요새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이제 와 보니 진실이고 옳았다.

-<새,사람행진단> 나희

대한민국 새만금신공항 반대 행동과 함께 하는 국제 연대

오스트리아 비엔나, 2025년 8월 19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54812)
전북지방환경청 담당자 앞

스테이 그라운드스(Stay Grounded)는 전 대륙의 200개 이상의 회원 기관을 대표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동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 교통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오브 디 어스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과 같은 대형 네트워크를 포함한 더 많은 기관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 기관을 대표하여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환경부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국내외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지지합니다.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종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지하고, 신공항 대신 기존 공항에 대해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 문제

한국 갯벌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독특한 생태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이전에 시작된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갯벌의 중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올해 초,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공개 서한에서 과학자들은 신공항 계획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번성했던 새만금 하구 내의 남아 있는 갯벌인 수라 지역에서 철새가 감소할 것임 강조했습니다. 파괴적인 간척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이 지역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였으며, 연간 최소 33만 개체의 이동하는 도요물떼새를 부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Protests against Saemangeum New Airport in the Republic of Korea

Vienna, Austria, August 19th, 2025

To whom it may concern
The Jeonbuk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120, Anjeon-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12, Republic of Korea

Stay Grounded is an international network that represents more than 200 member organizations on all continents, working together to bring forward a just, environmentally sound mobility system and to reduce air traffic and its damaging impacts. Even more organizations, including large networks such as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support our positions.

On behalf of all members organisations, we express our deep concerns about the plans for Saemangeum New Airport. We support the critical voices from academia and civil society bot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ly that urg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address the faul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 support the voices that demand an immediate stop of the airport project and suggest an evaluation of the existing airports instead.

Environmental concerns

The Korean tidal flats have received recognition for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2021, they were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cknowledging their unique ecolog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The plans for the Saemangeum New Airport date back to before this registration and failed to incorporate the significant value of the tidal flats.

Earlier this year, scientists have raised alarm about the biodiversity loss connected to the airport plans in an open letter published in the scientific journal Science. They highlighted the loss of migrating birds from

남아 있는 갯벌 중 하나인 수라 지역은 수많은 철새들(국가 법적보호종 59종과 전세계적 멸종위기종 27종 포함)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조류 서식지에 신공항을 계획하는 것은 또한 조류충돌 위험으로 항공 운영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기후 문제

갯벌의 파괴와 공항 건설은 기후에 이종의 재앙을 초래합니다. 갯벌은 탄소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항 건설 및 공항 자체는 탄소 배출에 기여하고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별 CO2 배출량 13위(2023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기후 피해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항공은 기후에 가장 해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입니다. 2018년 항공교통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기열화 중 약 6%의 책임이 있습니다¹⁾. 대한민국은 업데이트된 2030 국가자발적기여(NDC)에 따라 2018년 수준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운송 부문만 따져도 37.8% 감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귀중한 습지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중요한 탄소 흡수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항공 및 지상 운송 배출량 증가를 유발하여, 총체적 국가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파리협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위배됩니다.

피해 저감을 위한 공항 총 수용 인원 제한

한국의 15개 기존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를 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존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인프라에 필요 이상의 공공 자금이 이미 투척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 지역에는 이미 군산공항이라는 또 다른 공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스테이 그라운드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하는 수많은 목소리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합니다. 더 많은 항공 교통량을 위해 더 많은 파괴를 감수하는 대신, 항공 교통량을 축소시킬 잠재력을 찾기 위해 기존 공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몇 가지 국제적 사례를 소개합니다:

-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스키폴 공항의 항공편 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소음을 줄이고 환경적 제약을 충족하기 위해 연간 항공편 수를 50만편에서 47만 8,000편으로, 야간 항공편 수를 32,000편에서 27,000편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 이탈리아 캄피노 공항은 2018년 12월 18일의 환경 장관령 제345호에 따라 소음 공해를 법적

1) 항공 업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항공의 책임이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8년 항공의 CO2 배출량은 전 세계 인간이 유발한 탄소 배출량의 2.9%를 차지했습니다(제트 연료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한 CO2 배출량 포함). 하지만 실제로 항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의 기후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the Sura area, the remaining tidal flat within the once-thriving Saemangeum estuary. Before the start of devastating reclamation projects the area was “a key stopover along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supporting the annual migration of at least 330,000 shorebirds. As one of the last tidal flats remaining, the Sura area provides a critical habitat for numerous migratory birds (including 59 nationally protected species and 27 globally threatened species). Planning a new airport right on a bird habitat also endangers the safety of air traffic operations with the risk of birdstrikes.

Climate Concerns

The destruction of tidal flats and the airport construction represent a double catastrophe for the climate: While tidal flats play a crucial role in carbon storage, both the construction of an airport and the airport itself contribute to carbon emissions and heat the planet further. Korea already ranks 13th in CO2 emissions by country (2023).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would increase the climate damage caused. Aviation is the most climate-harming mode of transport. In 2018, air traffic accounted for around 6% of all human-caused global heating¹⁾. The Republic of Korea has pledged under its update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o reduc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40% from 2018 levels, including a 37.8% reduction in the transport sector alone. Building a new airport on valuable wetland would not only destroy a vital carbon sink but also trigger increased aviation and ground transport emissions, directly undermining the overall national commitment. Such a project runs counter to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its domestic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the Climate Crisis.

Reduce the harm by limiting airport capacity

Out of the 15 existing airports in Korea, 11 operate with a deficit. Already more than enough public money is being poured into infrastructure that endangers a liveable future for everyone. Furthermore, in the Saemangeum area, another airport already exists: Gunsan airport. As international Stay Grounded network, we reiterate our support for the numerous voices advocating for a stop of the project. Instead of more destruction for more air traffic, the existing airports should be scrutinized for shrinking potential. Some existing international examples:

- The Dutch government plans to cap the number of flights at Schiphol Airport this year. To reduce noise and meet environmental constraints they plan to limit annual flights from 500,000 to 478,000 and night flights from 32,000 to 27,000.
- Italian Ciampino airport was capped to bring noise pollution back to legal limits with the

1) The aviation industry claims that aviation is only responsible for 2 % of global warming. In fact, aviation’s CO2 emissions alone accounted for 2,9 % of all human-caused carbon emissions worldwide in 2018 (including CO2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jet fuel). But aviation is actually responsible for much more than that. More info on aviation’s climate impact see.

한계로 되돌리기 위해 항공편 수를 제한했고, 여기에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야간 항공편 통행 금지와 일일 허용 항공편 1/3 감축이 도입되었습니다.

- 2021년 4월, 프랑스 의회는 고속 열차로 2.5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 간 항공편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 2014년 아란몰라 그린필드 공항(인도)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환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선언한 국가 녹색 재판소의 판결을 인도 대법원이 비준하여 이 프로젝트의 종료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 2018년 코 팡안 섬(태국)의 한 공항이 불법적인 국립공원 파괴가 공론화된 뒤 중단되었습니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이 설명한 다른 예시들:

- 포르투갈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하구에 인접한 뉴리스본 공항 백지화: 이 공항을 오갈 잠재적인 항공편으로 인한 소음 증가로 인해 철새 개체 수가 감소하고 보전 노력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새만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공항 계획의 비행기 노선은 보호 습지 바로 위를 지나가서, 야생동물, 특히 조류 무리에 과도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50~65dB 이상의 소음 수준에 습지를 노출시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 호주 퀸즐랜드의 툰다 항구에서 주요 개발이 철회되었는데, 이는 철새에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중국 지양쑤성의 티아오지니 매립 계획 또한 중단되었고, 대신 이 지역은 2019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연락해주시요.

최대한의 존중을 담아



Mira Kapfinger
International Co-Founder and Coordinator
Stay Grounded Network

Ministerial Decree Environment no. 345 of 18/12/2018, introducing among others a night flight curfew and a reduction of the daily allowed flights by a third.

- In April 2021, the French parliament approved a law prohibiting flights between cities that can be reached in less than 2.5 hours by high-speed train.
- Aranmula Greenfield Airport (India) was stopped in 2014, after the Supreme Court of India ratified an order of National Green Tribunal verdict declaring the project in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quirements, leading to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 An airport on Koh Phangan Island (Thailand) was stopped in 2018 after illegal endangerment of a national park became public.

Other examples as outlined by Birdlife International:

- The New Lisbon Airport adjacent to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estuary in Portugal was canceled the increase in noise caused by potential flights to and from this airport were expected to lead to reductions in populations of migratory waterbirds, while damaging conservation efforts. As with the Saemangeum case, the airplane routes of this proposed airport would have directly overflowed the protected wetland, subjecting it to noise levels above 50-65 dB, considered likely to cause excessive disturbance to wildlife, especially bird flocks.
- A major development in Toondah Harbour in Queensland, Australia was withdrawn, following a decision of the relevant Minister about its impacts on a Ramsar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also known for its importance to migratory shorebirds.
- The proposed Jiangsu reclamation of Tiaozini,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halted and instead the area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Please contact me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these points further.

Most respectfully,



Mira Kapfinger
International Co-Founder and Coordinator
Stay Grounded Network

사법부 존경하는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님, 문지용 판사님, 고철만 판사님께

본 서한에 서명한 저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귀 재판부에 이 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시민행동단체들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곧 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제법, 헌법 등 공법 및 예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와 공동체에 대한 세대 간 피해를 연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법적 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아래 서명인들은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CICC): 멸종 전쟁」이라는 시민공론 법정을 조직하였습니다. 당시 심리에서 대한민국 내 기후·생태 피해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완공될 경우 초래할 생태적·사회적 피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인 중 일부(드수자, 김지영)은 새만금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업이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귀 재판부께서 동 사업의 인허가를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본 공항 사업지는 군산 지역 내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로부터 불과 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갯벌은 유네스코 지정 보호지역으로서, 전 인류의 문화유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적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본 공항 건설의 주 목적은 군산 소재 미합중국 군사공항의 확장을 지원하는 데

To the Honourable Chief Judge Lee Juyoung, Judge Moon Jiyong, and Judge Ko Chulman,

The signatories to this letter are writing to you because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Saemangeum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We have learnt that citizen action groups have filed a lawsuit challenging the project which will be heard by the Court very soon. We are experts from the fields of Public Law (international and constitutional) and art who work on the intergenerational impacts of harms to ecologies and communitie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seek to develop alternate legal frameworks to address the harms.

From 7-9 April 2023, the below mentioned signatories organised a public citizen's court titled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CICC): Extinction Wars at the Gwangju Museum of Art. At the CICC hearings, we heard citizens' complaints about climate and ecological harms in the Republic of Korea. Several citizens presented evidence to the court specifically about the ecological and social harm that the Saemangeum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is likely to cause if completed. Two of the below mentioned signatories (D'Souza and Kim) visited the Saemangeum area and saw for themselves the impact that the project will have on local communities and ecology. Based on the evidence we have heard, and our site visit we urge the Hon'ble judges to refuse permission for the project on the following amongst other grounds:

1. The airport project is seven kilometres away from the last remaining tidal flats in Gunsan region. The tidal flats are a UNESCO protected site, and therefore a heritage of all humanity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2. The airport project's primary aim is to service the expansion of the US military airbase in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는 이미 다수의 미군 공군·해군·육군 기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전쟁이 아직 평화협정으로 종결되지 않은 정전 상태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유엔 헌장과 그 정신에 반하며, 또한 평화를 증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헌장상 의무에 반합니다.

3.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서명국으로, 탄소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합니다. 항공 교통은 가장 탄소 배출이 높은 운송 수단 중 하나입니다. 새만금 공항을 이용할 인구 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인구가 적고, 이미 접근 가능한 군산 공항이 존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공항 예정지 인근 갯벌은 저어새 등 철새의 서식지이자 산란지입니다. 특히 황새, 검은머리물떼새와 같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가 다수 포함됩니다. 공항 건설과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조류종의 생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을 넘어 기후, 평화, 정의와 관련한 국제적 함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판부께서 심리 시 국제공공의 이익과 국제법적 의무를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견해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 및 평화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약속과 상충됩니다.

존경을 담아,
라다 드수자 (영국·인도 변호사, 국제법 교수, 제14회 광주비엔날레 CICC 공동 설립자)
요나스 스탈 (네덜란드/그리스 시각예술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CICC 공동 설립자)
김지영 (네덜란드 Framer Framed 소속, 제14회 광주비엔날레 CICC 주최 및 기획자)

Gunsan. US air, naval and military bases, of which there are several in the Republic of Korea, exist because of the frozen Korean War which is not yet finally settled by any international treaty between the parties. Any action that aids and facilitates war in a conflict zone is against the principles and spirit of the UN Charter and the Republic's commitment to promote peace under the Charter.

3. The Republic of Korea is signatory to the Paris Climate Accords which commits the stat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ir traffic is amongst the most carbon intensive modes of transport. The population serviced by the Saemangeum airport is very small and does not justify the levels of carbon emissions that the air traffic will generate. The area has a small population, and it will not be disadvantaged as Gunsan has an airport that is accessible.
4. The tidal flat region around the airport is home to seasonal migratory birds such as the Spoon-billed Sandpiper and a spawning site for many bird species. Some of the birds are listed as Endangered Species such as the Oriental Stork and the Black-faced Spoonbill. The harm caused by the airport project for the bird species by the air traffic and the changes to the land use for building the airport will be irreversible.
5. The decision of the Court will have international ramifications for climate, peace and justice beyo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se reasons, we appeal to the Hon'ble judges to consider international public interest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hearings. In our view the Saemangeum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serves neither national interests of Korean people nor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climate and peace.

Radha D'Souza (Barrister and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K and India and co-founder of the CICC at 14th Gwanju Biennale)
Jonas Staal (Visual artist, the Netherlands/Greece and co-founder of the CICC of the 14th Gwanju Biennale)
Ji Young Kim (for Framer Framed Netherlands, host and producer of the CICC, 14th Gwanju Biennale)

수라갯벌은 모두의 유산! 새만금신공항철회 국제연대 선언

Birds Stay Flying, Planes Stay Grounded! Heritage for All Life!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SURA

국제연대의 입장에서 국제법으로도 새만금신공항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제 네트워크인 스테이 그라운드(Stay Grounded)는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동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 교통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 단체이며, 전 대륙의 200개 이상의 단체를 회원으로 갖고 있다. 이 단체에서 모든 회원 기관을 대표하여 새만금신공항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신력 있는 국제 단체가 환경부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국내외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지지하고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지한다는 공문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직접 발송한 것이다.

스테이 그라운드의 공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갯벌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등재 이전에 시작된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갯벌의 중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으며, 조류 서식지에 신공항을 계획하는 것은 또한 조류충돌 위험으로 항공 운영의 안전을 위협한다.

갯벌의 파괴와 공항 건설은 기후에 이중의 재앙을 초래한다. 갯벌은 탄소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항 건설 및 공항 자체는 탄소 배출에 기여하고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항공은 기후에 가장 해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다. 대한민국은 2018년 수준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운송 부문만 따져도 37.8% 감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신공항 프로젝트는 파리협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위배된다.

공항과 항공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항공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편을 어디서 더 줄일 수 있을지 검토할 때이지, 신공항 계획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 항공 교통량을 축소시킬 잠재력을 찾기 위해 기존 공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미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항공편을 줄이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인도, 태국, 포르투갈, 호주, 중국에서 공항 백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라다 드수자 영국 웨스트민스터 법학대학 교수 및 기후범죄 재판소 시민법정 담당자들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재판부에게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국제법상 이 신공항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내용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은 유네스코 지정 보호지역으로서, 전 인류의 문화유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적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한국은 아직 정전 상태이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신공항 건설은,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유엔 헌장과 그 정신, 평화를 증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헌장상 의무에 반한다.
3.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의 서명국으로, 탄소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며 새만금신공항은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4. 공항 건설과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는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을 넘어 기후, 평화, 정의와 관련한 국제적 함의를 지니게 될 것이며,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 및 평화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약속과 상충하니, 재판부에서 국제공공의 이익과 국제법적 의무를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것이 국제법학자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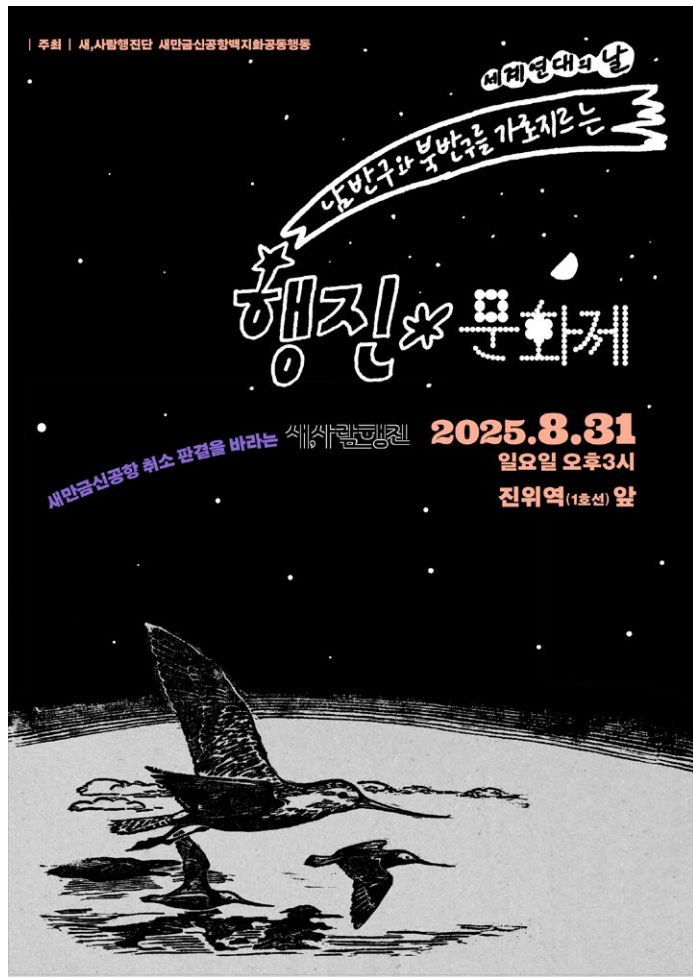
이제 수라갯벌의 보존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는 전세계에서 주목하는 이슈이다. 온 인류와 비인간 생물종, 생태계 그 자체에 수라갯벌의 귀중한 가치는 이미 인정받았으며, 새만금신공항 사기극도 이미 만방에 공표되었다. 지구적 유산 보존, 평화,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새만금신공항 철회는 전지구적으로 필요하다.

갯벌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수라갯벌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라!
기후악당 대한민국, 더 이상은 탄소감축 미룰 수 없다. 전국 신공항 철회하라!
조류충돌 위험 막을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미군기지 확장은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장에 반한다. 전쟁 말고 평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수라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새만금신공항 사기극, 전세계가 알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2025년 8월 3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새,사람행진단 일동

같이 가보려 합니다.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쉽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새사람행진단에서 즐겁게 길을 가고 있는 알알이입니다.

오늘이 행진한 지 20일차인데요. 그동안 저희는 큰뒷부리도요를 모시고 수라 갯벌과 한때는 갯벌과 바다였던 길을 걸었습니다. 수라 갯벌의 옆 동네 서천 갯벌을, 그와 이어지는 금강과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편리하게 구분하는 대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새들에게 수라갯벌과 서천 갯벌, 나아가 서해는 하나의 권역이었습니다. 그 갯벌들은 강과 하천과 바다로 연결되어 경계 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흰목물떼새와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자를 위한 파업에 동참해 팔레스타인을 위한 구호를 외쳤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던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미군 기지 건설로 집과 땅을 빼앗기고 이주한 농민들이 사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행진은 시내가 흘러 강으로 가고, 갯벌을 지나 바다로 가듯이 넓어졌습니다. 갯벌들이 연결되어있듯, 갯벌이 강과 바다와 연결되어있듯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사람행진에서 환경과 평화 운동, 노동과 농민과 동물권 운동은 분리될 수 없이 한데 엮였습니다.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설 땅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땅, 자기 삶의 자리를 자본의 필요나 군사적 목적으로 빼앗겼던, 혹은 빼앗긴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땅을 뺏기는 이들은 압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인종이든. 혹은 어떤 종이든, 뺏기는 이들은 서로의 처지를 말 없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부 치하에서 4년 넘게 버티고 있는 미얀마의 사람들은, 미군 기지 이전을 앞두고 또 싸움에 나선 오키나와의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땅을 빼앗긴 역사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새만금과 서해의 갯벌을 빼앗겼고, 남아있는 티전도 또 빼앗길 위기에 있는 큰뒷부리도요의 삶과 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염과 호우, 각종 재난문자경보들과 함께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우리 땅의 위기를 겪으며,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진을 하면서, 그 땅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라갯벌의 생명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서 우리를 둘러싼 살아있는 혹은 죽어있는 생명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강은 흰목물떼새의 땅이자 짱뚱어, 칠게의 땅이었고, 도로와 도로가는 고라니와 유혈목이, 고양이와 매미와 잠자리의 땅이었습니다. 하늘은 후투티와 갈매기, 황조롱이, 백로와 황새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닌,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낯선 우리들에게 전부인 소중한 그 땅, 우리 수라갯벌을 위한 여정에서, 세계 곳곳과 손잡을 수 있어 벅차게 반갑습니다. 수라갯벌은 우리 모든 존재들의 땅이자 삶이자 세계입니다. 공항에, 더이상 자본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의 땅과 삶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큰뒷부리도요와 우리의 땅과 삶을 지켜나가는 행진에서, 그간 저의 삶은 무엇에 얼마나 빼앗겨왔는지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지나는 도시의 사람들은 바쁘게 길을 갔습니다. 낯선 이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어색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각자도생, 나아가 각자도사의 사회에서 내 일만 하기에 딱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너무도 저와 닮은 사람들을 만나며 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면서, 저는 점점 더 빨라지는 그 흐름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흐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존재들을 보지도 않고 지나쳐왔는지를, 혹은 무심코 밀치고 밟아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새, 사람행진은 많은 이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진하는 이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와 거리의 만찬을 대접해주는 이들이, 생명수같은 물과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조달해주는 이들이, 이 행진이 진행될 수 있게 음으로 양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우리에게 화이팅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처럼 힘들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이들 덕분에 즐겁게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가보려 합니다.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있어 잘 안되지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수라갯벌을, 우리의 땅과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천천히, 앞만 보지 않고 옆과 뒤와 아래와 위에 함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더 굳게 손잡고, 더 많이 사랑하며, 최선을 즐겁게, 새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말: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며 내용을 함께 상의해준 토니와 매일 '수라의 외침'으로 영감을 준 딸기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큰뒷부리도요를 비롯한 새사람행진단에 사랑을 전합니다.

황조롱이와 맹금류의 외침, "수라갯벌은 살아있다"

행진 20일차인 8월 31일, 새·사람행진단(아래 행진단)이 정한 '황조롱이의 날'이자 '국제연대의 날'이다.

오늘의 출발지인 평택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총 250km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긴 행진단은 이날 평택 진위역까지 이르렀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얼음물과 간식, 점심식사로 이어지는 연대의 손길은 계속되었고, 방송차와 엠프, 숙소 마련과 연대 조직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여러 단체와 조직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오랜만에 풍물패와 함께한 행렬은 진위역까지 이어졌고 행진단은 더욱 신나게 목소리를 높여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외쳤다.

진위역에 도착한 행진단은 짧은 휴식 후 곧바로 기자회견과 행진문화제를 준비했다.

오후 3시, 행진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전세계 200여개 연합단체인 '스테이 그라운드(Stay Grounded)'가 환경부에 신공항 사업의 즉각 중단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직접 발송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그라운드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한국 갯벌의 중대한 가치를 반영하는데 실패했으며, 조류 서식지에 신공항을 계획하는 것은 조류 충돌 위험으로 항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파리협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한국이 져야 할 국제적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라다 드수자 영국 웨스트민스터 법학대학 교수 및 기후범죄 재판소 시민법정 담당자들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재판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갯벌 보존과 더불어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신공항 계획이 유엔 헌장과 평화 증진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정상 의무에 위반한다며, 재판부가 국제공공의 이익과 국제법적 의무를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행진단과 공동행동은 "전 세계가 수라갯벌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중단하고 지구적 유산 보존, 평화, 생물다양성,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새만금신공항 철회 연대 메시지를 전하며 흥겹게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Save our SURA!", "조류충돌 막을 수 없다!", "새, 사람 함께 살자!"를 외치며, 행진단은 다시 한번 신공항 철회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행진단은 9월 1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9월 2일 진위역에서 병점성당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오는 9월 5일에는 남태령을 넘어 서울 행정법원까지 큰뒷부리도요새와 함께 걷는다.

“새만금신공항, 한국민 이익에 부합 안해… 취소 판결 내려달라”

오는 9월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외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환경청과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이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제 연대의 날’인 31일 경기도 평택 진위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계 200여개 단체의 연합인 ‘스태이 그라운드’와 외국의 전문가들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취소하고 그 부근의 수라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보내왔다. 또 23개 나라의 활동가들이 새만금신공항 취소에 연대한다는 영상 메시지도 보내왔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를 요구하며 현재 전주에서 서울까지 250km를 걷는 ‘새, 사람 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 소송인단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스태이 그라운드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보낸 편지에서 “갯벌의 가치, 생물 다양성, 조류 충돌의 위험, 갯벌의 탄소 저장,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는 점, 다른 나라 공항 건설의 중단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신공항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는다.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타이 그라운드는 친환경적인 교통 체계를 만들고 항공 교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활동하는 국제 단체로 전세계에 200개 이상의 회원 단체가 있다.

31일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부근에서 ‘새, 사람 행진’이란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주에서 서울까지 250km를 걷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31일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부근에서 ‘새, 사람 행진’이란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주에서 서울까지 250km를 걷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또 국제법 전문가인 라다 드수자 영국 웨스터민스터대학 교수와 시각 예술가인 그리스의 요나스 스탈 등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9월11일 열리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새만금신공항은 그 사업지가 유네스코자연유산인 갯벌에서 불과 7km 거리에 있고, 그 목적이 미국의 군사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며, 탄소 배출을 더 늘리고, 멸종위기종 새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 이 사업은 한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기후와 평화에 관한 한국의 국제적 약속과 충돌한다. 국제적 공공 이익과 국제법적 의무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세대간 기후 범죄 재판소’라는 시민 공론 법정을 열어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도 9월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그동안 제기된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 파괴 등 문제점을 밝히고, 이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부터 67일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벌여왔다.

Not-Yet Humanity



Any attempt to unsettle the coloniality of power will call for the unsettling of this overrepresentation [of man]’

Sylvia Wynter Unsettling the Coloniality of Being-Power-Truth-Freedom

If Korea’s postwar landscape is memorialized by its developmentalism, how will future generations narrate such histories in a time of climate crisis? We gather and continue to gather in the name of Sura and the non-human entities that Sura holds. Sura holds deeply and invokes a description that contains not only. Not only is it a tidal flat, but it is a home for the several endangered species. Not only does it produce life, but it is living. Marching for Sura is to recognize a mode of kinship that exceeds what legal frameworks may define as ecological zones or sites of development. We recognize Sura not just as a place worth saving, but one that we are in solidarity with. One whose life is at stake, that we must tend to. Just as Sura is invoked as living and breathing (however endangered it may be), such recognition also confers a sort of queerness of kinship. Sura interrupts geographical boundaries because it is not just one place; rather it is also the Suncheon Tidal Flats and the water that flows through Geumgwang (Geum River). It queers our understanding of national geographies and ecological designations which may prefer to enclose Sura to one such location. Sura refuses geographical boundaries but

also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Everyday we hear how Sura lives through the other entities that call Sura home, even as the legal system obscures such relationships and reduces it into developmental assets for the state. What does it mean to be a human in solidarity with Sura in the presence of a legal system which denies life over development? Those of us who march do not claim to speak for the birds or for the tidal flat, rather marching represents our desire to hold onto such kinships even when faced with the force of law. The lawsuit calls directly into question the impossibility of justice under a legal framework which cannot recognize Sura’s life and the lives of several species of shorebirds beyond their categorization as non-human species. ‘Development is good for humans, airports will help humans travel faster, humans become more modernized as development is expanded.’ The preordained calculation in such statements is to define the human as one whose life is solely dependent on its ability to translate their surroundings into economic relations. Is humanity defined by the notion of property and control over its environment? Has it always been this way? A humanity chained to the systems of global capitalism propped up through the militarization of land, sea and air. What might it mean for humanity to acknowledge that the very essence of other lives beyond the non-human may outweigh our economic dependencies? What might it mean to walk together with the shorebirds not only as an act of solidarity but as a new way of being?

250825 대모잠자리

250826 검은머리갈매기

250827 칠게

250828 줄장지뱀

250829 가마우지

250830 양뿔사초

250831 황조롱이

공항말고 갯벌!